

濟州大學校 卒業生의 就業問題와 그 對策

徐庚林* · 朴泰秀** · 姜東植*** · 金斗和****

目	次
I. 序 論	3. 就業에 對한 準備
II. 理論的 背景	4. 就業選擇의 要件
1. 就業指導의 諸理論	5. 就業에 關한 情報 및 相談
2. 現代社會의 職業構造와 動向	6. 卒業後 母校와의 關係
3. 職業選擇의 基準	7. 職場에서 同窓과의 關係
III. 研究方法 및 節次	8. 學校에 바라는 事項
1. 質問紙 調査	V. 要約 및 提言
가. 調査 對象 및 實施	VI. 卒業生의 就業 對策
나. 調査 道具	1. 職業輔導 活動의 一元化
다. 資料 處理	2. 就業資料室의 運營
2. 就業 對策 懇談會	3. 就業 準備 教育의 活性化
3. 研究의 制限點	4. 有關機關과의 紐帶強化
IV. 研究 結果 및 解釋	5. 就業同窓과의 紐帶強化
1. 職業에 關한 價値觀	※ 參考文獻
2. 就業 實態	※ 英文抄錄

I. 序 論

현대 産業社會에 있어서 職業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인간대우를 받을 수도 없다. 職業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삶의 도구이다. 직업을 통하여 삶을 운택하게 하고 보람을 찾게 된다.

+ "이 論文은 1988 年度 文敎部 學術研究 助成費에 의해 연구되었음."

* 學生生活研究所長 (法政大學, 副教授)

** 學生生活研究所 相談指導部長 (專任講師)

*** 學生生活研究所 調査研究部長 (專任講師)

**** 學生生活研究所 就業輔導部長 (專任講師)

과거의 전통적 농업사회에 있어서는 직업의 문제가 의식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천대시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직업을 가지려는 자세가 나타나고 있다. 종전에는 家事에 만족하였던 여성들도 직업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참으로 심각한 것은 대학졸업자 등 고학력자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리쿠르트」誌(1987.5)가 조사한 전국 42개 4년제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84년 79.2%에서 '87년 61.6%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 때문에 그동안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서비스 및 外販분야에까지 대학 졸업생들이 몰려들고 있고, 高卒학력자가 주로 지원했던 9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 이르면서 大卒者의 취업률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수년 사이에 2배 이상 증원된 대학 정원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표면상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산업구조, 경제성장, 공업고도화 등 여러가지 與件을 감안할 때, 고급 인력의 고용을 한꺼번에 늘리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하여 大卒者의 취업난이 문제가 될 것이다.¹⁾

제주도는 산업구조가 제1차 산업과 제3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고, 고용 효과가 큰 제2차 산업은 미미한 실정이므로 노동의 수요가 크지 않다. 특히 大卒者의 취업의 길은 수요가 별로 없으므로 제주도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렵다. 최근 제주지방노동사무소의 분석에 의하면, 도내 事業場이 고학력보다는 저학력자를 원하고 있으므로 대졸자에게 맞는 직장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다.²⁾

최근에 와서 제주대학생의 취업률은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³⁾, 앞으로 졸업생은 계속 배출될 것이고, 대졸자의 취업여건은 쉽게 호전될 전망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취업문제에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理想的인 就業은 각자의 주관에 달려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능력에 알맞게 취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조건은 제쳐두고, 무조건 취업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1) 姜志勇 外 2人, 卒業生の 就業擴大를 위한 方案 研究, 「學生生活研究」 제 10집, 濟州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8.2, p.128.

2) 제주신문, '89년 1월 26일자.

3) 제주대학생의 순수 취업률(대학원 진학자, 군입대자 제외)은 '86학년도 21.9%, '87학년도 41.3%, '88학년도 47.6%로 높아지고 있다.

때일수록 허둥대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뚜렷한 目標意識을 가지고 삶의 실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就業과 삶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좀더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분수에 알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여건 속에서 창조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럴 때에만 자신의 생활은 의미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大學의 三大 機能을 教授와 研究, 그리고 社會奉仕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역시 고등 교육기관인 大學은 전통적인 학문과 연구의 기능 외에, 현대사회의 요구에 따라 專門職業人을 양성해야 하는 기능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도 다양한 산업사회에 알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適應하고, 그 직업 속에서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전년도(1988)에 「졸업생의 취업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이 연구는 주로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별, 성별 중심의 취업관련 조사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재학생의 직업의식 및 졸업생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학생과 함께 졸업생들의 직업관, 취업실태, 취업에 대한 준비, 직업선택의 요건, 취업에 관한 정보 및 상담 등에 관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분석으로 제주대학교 졸업생의 就業對策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 理論的 背景

人間이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生存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生存에 필요한 것은 勞動, 즉 일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인데 이와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행해질 때 이를 生業이라고 한다. 인간 사회가 자급자족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활동으로 충분했으나 社會가 복잡해지고 변천되면서 分業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分業의 概念은 歷史的으로 Plato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 社會學者 뒤르켄(E. Durkheim)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研究되었다.⁴⁾

4) Durkheim, Emile,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N.Y.: The Free Press, 1933)는 분업에 관한 가장 체계적인 연구로 이해되고 있다.

社會가 分業化되면서 일을 專門的으로 分擔하게 되고 그 結果를 서로 交換하게 되면서 職業이란 개념이 뚜렷해지게 되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생산성에 관련되는 개인의 經濟的 자질과 能力을 專門的으로 준비시키는 職業教育이 비교적 근래에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19C 이전까지는 직업에 대한 관념이 발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점에서 職業이란 개인적으로는 生業이지만 오히려 社會的 要求가 강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生業으로서의 직업은 인간의 생활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러나 社會가 分業되고 專門化되기 시작하면서 직업은 개인의 社會적 신분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고 따라서 사람들은 직업에 대한 관심을 강하게 나타내게 되었다. 직업은 社會적 機能의 分擔이기 때문에 社會적인 의미가 강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個人的인 職業觀 또는 욕망과 社會적인 要求과의 갈등이 있게 마련이어서 어느 國家이든 社會적으로 필요한 職業인을 제도적으로 양성하는 職業訓練, 職業教育 體制를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大學은 社會적으로 要求되는 人力養成을 외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심각한 갈등과 大學의 進路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모든 大學이 就業準備 教育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學問研究를 위해서 大學은 存在한다. 그래서 現代의 大學은 基本 學問研究의 성격과 전문인 또는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職業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學問研究를 강조하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職業選擇 能力과 大學 卒業者에 대한 進路指導를 겸하고 있다.

흔히 大學의 三大 機能으로서 人間教育, 學問研究, 社會奉仕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個人的으로는 自我實現을 통한 幸福과 社會的으로는 社會發展을 도모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1. 就業指導의 諸理論

效果的인 就業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理論을 근거로 해야만 問題 상황의 性格에 따라 적절한 內容과 方法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

進路指導를 설명하기 위한 接近은 學者에 따라 다양하다.

Herr & Crammer⁵⁾가 가장 포괄적으로 進路指導에 대해 5가지 接近方法으로 통괄하여 分類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5) Herr E. & Crammer, Career Education in the College Preparatory School, the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1973.3.

- ① 特性理論의 接近 (Trait and Factor Approach)
- ② 意思決定論的 接近 (Decision Approach)
- ③ 社會學的 接近 (Socialological Emphasis Approach)
- ④ 心理學的 接近 (Psychological Emphasis Approach)
- ⑤ 發達理論的 接近 (Development Emphasis Approach)

이상과 같은 각 理論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特性理論的 接近 (Trait and Factor Approach)

現代的 생활지도 운동에 기폭적 역할을 하고 職業指導를 창설했던 F. Parsons 를 創始의 人物로 보고 Howard Bell, Edmand Williamson 등이 그 代表的인 學者로 꼽히고 있다.

이 理論은 개인의 소지한 諸特性을 심리검사 등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밝혀내고 각각의 직업이 요구하는 諸要因을 分析하여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케 하는 것이다.

이 理論이 중요시하는 적성, 지능, 사회·경제적 지위, 흥미, 價値觀, 理想 등은 직업에 대한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적성을 고려하는 진로선택이라는 점에서 그 重要性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 理論은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Hall & Lindzey는⁶⁾이 이 理論은 발달 과정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론으로 간주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였고 특히 개인의 특정 직업에 성공할 확률을 점치는 예언 타당도가 극히 낮다는 점이다.

나. 意思決定論的 接近 (Decision Approach)

직업선택은 결국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라고 보고 다양한 의사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進路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Gelatt, Hilton, Katz 등이 주류를 이루는 意思決定 이론은 케인즈의 經濟理論에 바탕을 두어 여러가지 선택 가능한 직업 중에서 자신의 투자가 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Katz는 意思決定 과정이란 환경과 더불어 個人的, 社會的, 心理的, 복합 상호작용들로 특정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은 선택점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과정을 주도한다.

價値觀은 意思決定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주된 요소이다. 그러므로 價値觀의 明瞭化가 생활

6) Hall & Lindzey, G., Theories of Personality, N.Y., Lang Mass, 1957.

지도의 일차적 관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進路發達의 첫째 과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價値觀의 범위를 인식할 수 있게 격려하고 그들 자신의 價値觀 선택을 의사결정 과정에 투입하는 것이다.

두번째의 課業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선택의 기회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번째의 과업은 이 과업들이 어떻게 합리적인 과정으로 결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언적 자료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Gelatt 가 제시한 進路相談의 구체적 절차에는 ① 目的意識, ② 情報收集, ③ 可能的 대안의 열거, ④ 각 대안의 결과 예측, ⑤ 각 대안의 實現可能性 예언, ⑥ 價値評價, ⑦ 意思決定, ⑧ 評價 및 再投入 등이다.

이 理論의 장점은 民主社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個人에게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서 장래 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 短點으로는 개인들은 흔히 意思決定을 싫어하며 또 의사결정의 과정은 반드시 행위를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제한점은 진로발달이 특별한 時點이나 위기 상황에서만 정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또한 이 接近의 문제점은 모든 사람이 合理的 思考를 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어떻게 객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 대두된 價値 明瞭化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價値化 過程을 습득시키므로 자신의 보람되고 의미로운 意思決定力을 길러줄 수가 있으리라 믿어진다.

다. 社會學的 接近 (Socialological Emphasis Approach)

社會學的 立場에서는 個人의 진로발달의 선택은 現實과의 타협이나 우발적인 사실로 보려는 경향이 짙다. 즉 進路의 선택은 진로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서 청소년이 당면한 과제를 자신의 주위 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의 개발이라는 논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개인을 둘러싼 社會·文化的 환경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社會學的 知識을 바탕으로 理論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近來 個人의 選職研究에 새로운 접근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職業群에 대한 地位 點數를 부여하는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성 있는 측정방법의 開發과 社會階層 研究에의 path

analysis 방법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⁷⁾ 여기에는 P.M. Blau 와 O.D. Duncan 을 비롯하여 D. L. Featherman, J. S. Picou 등이 그 중심적 활동을 하고 있다. 測定作業을 통해 얻어지는 직업에 대한 地位點數는 과거 經濟的인 연구에서 흔히 사용했던 事務職 對 勞務職式의 형태로 분리 비교하던 방법에 비하여 직업적 차이를 발견하는 데 현저한 발전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이같은 방법의 개발로 해서 사회계층 및 직업선택 연구에 커다란 두 가지의 변화를 야기시켜 주게 되었다.⁸⁾ 즉 그 하나는 地位移動에의 개념이 현재의 지위에 주어지는 득점에서 과거의 지위에 주어지는 득점을 빼낸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변화는 모호하게 표현되던 지위이동 연구가 명확하게 得點으로 표현되는 地位成就(status attainment) 연구에로 사회계층 연구의 초점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사회이동 연구에 있어서는 주된 從屬變因이 本人의 현재 地位와 父母의 지위격차 및 本人의 現在 地位와 과거 지위와의 차이 등이 되는 데 비하여 지위성취 연구에서는 모든 과거 지위나 부모의 지위는 현재 지위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으로 취급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 心理學的 接近(Psychological Emphasis Approach)

心理學的 接近에 속하는 理論들로서 Hoppock⁹⁾는 進路의 선택과정은 결국 개인의 삶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욕구충족 이론으로 보았고, Holland¹⁰⁾는 진로의 선택을 여러가지 상이한 性格과 이에 준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人間環境의 有型論을 주장했고, Roe¹¹⁾ 등은 進路決定 및 개인의 만족에 관계되는 특정한 심리학적 인 요인인 內的 動機 過程變因을 중요시하는 理論으로서 客觀的이고 觀察이 가능한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는 特性理論的 接近과는 반대 입장이다.

이는 주로 정신분석학자, 人性論者들이 지지하고 있으며 人性의 차가 다양한 만큼 욕구도

7) Duncan, O.D. "A Socioeconomic index for all Occupation," N. Y.: Seminar Press, 1972.

8) Rehberg, Richard, "Career Counseling in Contemporary U.S. High School" in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1979, p.119.

9) Hoppock, R., Occupational choice (N.Y., McGraw-Hill Book Co, Inc, 1957)

10) Holland, J., Making vocational choice : A Theory of Career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73)

11) Roe, A., Early Determinants of Vocational choice :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57. 4)

다양하고 직업선택은 人間の 欲求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므로 여러 종류의 직업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S. Weinrach는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결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① 이 理論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검사기술이 완벽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② 한 사람의 검사된 관심이 곧 직업적인 관심으로 직결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③ 한 사람이 檢査된 관심이 卞生을 통하여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④ 직업발달이 기본적으로 정의적인 것이 아니라 인지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⑤ 모든 사람에게 단 한 가지의 올바른 선직이 있을 뿐이라는 것 등이다.¹²⁾

마. 發達理論의 接近 (Development Emphasis Approach)

人間發達의 개념을 진로지도에 도입한 것으로서 進路發達은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발달하여 청년기에 성숙해진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自我概念 理論이라고도 하는데 개인의 自我에 대한 개념의 발달을 진로발달의 설명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

發達理論은 1942년 Super에 의하여 출간된 “Dynamics of Occupational Selection”에 관련된 모노그래피에서 처음으로 이용되어 Ginzberg, Tiedeman 등에 연결되는 일련의 代表的 學者이다. 이 理論은 직업지도는 職業選擇의 觀點에서 볼 것이 아니라 職業發達(vocational development)의 觀點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¹³⁾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개인을 과거의 발달 단계에 의하여 형성된 개인과 앞으로도 發展해 나갈 개인으로 보고 助言하자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앞에 열거한 就業指導의 諸理論들은 자기 長點과 短點이 있을 수 있으나 복잡한 就業構造를 가진 現代社會에 있어서 취업을 희망하는 學生들에 進路指導를 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一般的으로 進路指導에는 特性理論의 接近方法 등이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進路選擇은 自我實現 手段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선 적성검사와 先輩 혹은 教授와의 토론을 거쳐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 Weinrach, S. G., How Career choice are made, N. Y. : Mass Information Corporation, 1975.

13) Ginzberg, E. and others, Occupation choice :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 Y., 1951.

2. 現代社會의 職業構造와 動向

現代社會는 여러가지 言語로 표현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韓國社會가 高度成長 政策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되면서 一次 産業에서 二次 産業, 三次 産業의 발달을 가져오는 급속한 변화를 초래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農耕社會에서 工業社會로 변천되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직업구조를 바꾸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업화 과정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非農業部門의 직업 종사자들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職種이 늘어나면서 職業構造가 복잡하게 變하고 있다는 것이다.

韓國開發研究院의 發表에 의하면 1986년에는 1人當 GNP 經常價格 3,857 불로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1991년에는 7,731 불이 된다고 한다.¹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직업구조는 先進國型을 갖추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人當 GNP 2,500 불 이상을 달성함으로써 高度 産業社會¹⁵⁾의 문턱에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고도 산업사회는 기술혁신, 산업조직의 개편, 都市化, 전문직업과 管理職業의 확대, 教育 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知識社會의 到來로 인한 정보의 팽창 등 많은 특징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高度 産業社會에서는 職業의 종류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직업의 분류는 전문직 (professional), 기술직 (technical), 경영직 (managerial), 사무직 (clerical), 판매직 (sales), 숙련직 (skilled), 반숙련직 (semiskilled), 미숙련 노동직 (unskilled)으로 나누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없이 많은 직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세계에는 약 20 만종의 직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직업에 대한 명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류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된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직업의 종류와 산업화의 정도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現代社會에서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人力을 확보하기 위하여 政府, 學校, 産業體가 독자적으로 또는 協力하여 努力하고 있다.

14) K. D. I., 「長期經濟社會發展(1977~1991)」.

15) 여기서 말하는 高度 産業社會는 Dael Bell의 Post Industrial Society와 Kenneth Bouking의 Post Civilized Society 등에 해당된다.

政府는 필요한 國家的 차원의 人力을 學校教育으로 充當해 왔지만 점점 산업화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職業構造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人力養成 압력을 學校에 하게 된다. 그러나 學校는 직업인 양성이 아닌 다른 교육적 가치를 중요시하거나 학교의 능력이 새로운 요구를 충족할 수 없을 때는 時代的 요청에 부합되는 人力을 양성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政府는 재훈련을 시키거나 다른 訓練手段을 마련하는 것이다.

어쨌든 현대사회에서는 기술발달과 산업조직의 변경으로 끊임없이 직업구조가 변하고 있다. 계속적인 組職과 기술혁신은 직업에 대한 처우체제와 직업인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경영의 合理化와 自動化(Automation)는 숙련직, 事務職, 技術 및 專門職, 經營行政職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다.

3. 職業選擇의 基準

高度 産業社會는 專門職, 技術職, 經營職, 판매직, 사무직 등에 종사하는 人口가 많아지고 특히 專門家와 技術官僚(Technocrat)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이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高級人力은 주로 대학에서 배출하게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社會的으로 어떤 職業이 요청된다고 하더라도 個人의 직업에 대한 選擇基準은 반드시 일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職業은 自我實現의 수단이기 때문에 적성에 맞아야 하고 經濟的 보상이 적절해야 하고 安定性이 있어야 한다. 즉 個人的 欲求是 물론 社會·經濟的 필요도 충족될 수 있을 때 職場生活이 보람스럽고 만족되기 때문이다.

職業選擇의 기준은 먼저 自身에서 찾아야 한다. 自身의 能力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직업정보를 통해서 그 직업의 성격을 파악하고 自身의 條件, 適性, 興味, 性格, 知能, 身體條件, 自身의 人生目標과 비교하여 합치된다고 판단할 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自己自身の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각종 心理檢査와 父母, 教授, 先輩, 기타 助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職業選擇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할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職業에 대한 適性和 興味が 있어야 한다.

適性の 概念은 廣義의 개념과 狹義의 개념으로 나누는데, 廣義의 적성은 미래의 學習 또는 成功을 예언하는 個人이 갖고 있는 현재의 모든 특성을 의미하고, 狹義로는 개인의 知能에만 국한하는 몇 개의 비교적 單一 特性들을 의미한다.¹⁶⁾

이렇게 보면 직업적성이란 能力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廣義의 적성을 말한다. 개인의 직업적성을 구성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직업에 대한 個人의 興味다. 興味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반드시 직업에 적응하고 成功하는 데 決定的인 要因이 아니라 하더라도 特定 직업에 興味が 없는 사람이 興味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실패할 可能性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우선 興味が 없으면 能動的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被動적이고 어쩔 수 없어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興味란 先天的으로 지니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後天的으로 學習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⁷⁾

따라서 現在는 興味が 없는 것에 대해서도 노력과 환경 여하에 따라 興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나. 報酬 (Salary) 가 적절해야 한다.

現代社會 특히 資本主義의 經濟體制를 갖고 있는 사회에서 보수는 職業選擇의 가장 기본적인 고 보편적인 기준이 된다. 적어도 自己의 能力과 努力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보수에 불만이 없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다. 職業의 社會的 價値가 있어야 한다.

모든 일 모든 직업은 그 나름대로의 價値를 지닌다.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理念이나 직업관과 合致되는 직업을 택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 수입이 보다 많은 職業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 收入이 적어도 時間 여유가 많은 職場을 택하는 사람, 社會的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職業, 보다 노력이 덜드는 직업을 원하는 사람 등 가지각색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개인의 社會的 지위를 평가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種類의 직업을 갖느냐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지닌다.

16) 任寅宰, 人間成長과 직업과정, 「새 교육」, 대한교육연합회, 1976.5, p.51.

17) Clark Kenneth E., Vocational Interest Testing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 Y.: The MacMillan Co., Vol. 16, 1974), pp.345~349.

라. 職業의 安定性和 身分保障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어떤 意味에서 現代人이 職業을 갖는 것은 自我實現의 方便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선택한 職業은 安定性이 있어야 하고 身分保障이 되어야 한다.

職業選擇은 제 2의 結婚과 같은 것이므로 올바른 職業觀을 갖고 自己自身の 條件과 職業이 요구하는 조건이 합치되는 것을 택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社會, 어떤 사람에게나 보편적인 原理에 속한다 할 것이다.

Ⅲ. 研究方法 및 節次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職業觀과 현재의 就業狀態를 파악하고자 質問紙 調査를 하였으며, 質問紙 調査 結果를 바탕으로 취업문제 및 그 對策을 마련하고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1. 質問紙 調査

가. 調査 對象 및 實施

調査 對象은 본교 재학생과 졸업생 중 재학생 730名, 졸업생 700名을 層層 무선 표집 방법 (stratified sampling)에 의하여 선정하였다. 재학생은 總 6,395名 중 大學別, 學年別로 구분하여 선정하였으며, 졸업생은 1984년 2월 졸업생부터 1988년 2월 졸업생까지 總 6,153名중 이들의 學籍簿, 卒業生 名簿, 同窓會 名簿, 緣故者를 통해 소재가 확인된 者만을 선정하였다.

質問紙 調査는, 재학생의 경우 각 單科大學의 學生 代表들로 하여금 質問紙 調査의 重要성과 실시상의 留意점을 주지시킨 후 실시토록 하였고, 졸업생의 경우는 個人別로 직장 소재지에 質問紙를 우송하여 실시하였다. 質問紙의 調査 對象 및 分析 可能한 資料는 다음 〈表 I-1〉, 〈表 I-2〉와 같다.

〈表 I-1〉 在學生의 質問紙 調査 對象 (단위: 명)

학년 \ 대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학 대학	이공 대학	전체
1	29	28	30	9	23	25	8	152
2	30	27	23	26	11	31	14	162
3	29	37	10	43	25	30	28	202
4	15	9	21	19	11	15	18	108
전 체	103	101	84	97	70	101	68	624

〈表 I-2〉 卒業生の 質問紙 調査 對象 (단위: 명)

졸업연도 \ 대학	인문 대학	사회과학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학 대학	이공 대학	전체
1984. 2 월	0	11	4	3	11	17	46
1985. 2 월	10	17	5	1	9	8	50
1986. 2 월	3	11	12	3	4	11	44
1987. 2 월	8	24	2	0	3	8	45
1988. 2 월	15	20	8	1	2	11	57
전 체	36	83	31	8	29	55	242

나. 調査 道具

본 연구의 調査 道具는 진로선택을 위한 諸理論 중에서 특성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직업결정 조건으로 제시된 適性, 興味, 價値觀, 報酬, 社會的 地位, 安定性, 先輩 또는 教授와의 對話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제작되었다.

質問紙는 졸업생용, 재학생용의 2種類로서 職業에 관한 價値觀, 졸업생의 就業 實態, 재학생의 就業에 대한 準備, 職業選擇의 要件, 就業 情報 및 相談, 卒業 후 母校와의 관계, 職場에서 同窓과의 關係, 學校에 바라는 事項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質問紙의 문항 구성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表 I-3〉과 같다.

〈表 I-3〉

質問紙의 構成 內容

영역	변인	문항번호	
		재학생	졸업생
개인 특성	· 소속 대학	1	1
	· 현재 학년	2	
	· 성 별	3	2
	· 졸업연도		3
직업에 관한 가치관	· 직업을 갖는 목적	4	
	· 갖고 싶은 이상적인 직업	5	
	· 직업선택의 기준	6	14
취업 실태	· 직장 소재지		4
	· 취업 경로		5
	· 현재의 직종		6
	· 월 평균 수입		7
	· 현재 직업과 전공과의 일치		8
	· 전직 경험		9
	· 전직을 원하는 이유		10
	· 앞으로의 전직 희망		11
	· 직장의 직무 만족		16
	· 취업 준비상의 애로		17
취업에 대한 준비	· 졸업후 진로 계획 여부	7	
	· 현재의 취업 준비 상태	11	
	· 취업 준비 시기	12	
	· 취업 준비와 학과 공부의 비중	13	
	· 취업 준비에 대한 자신감	15	
	· 진로 결정 시기	18	
직업선택의 요건	· 진로 희망 분야	8	
	· 희망하는 직종	9	
	· 입학시 전공학과 선택 동기		12
	· 직업과 전공학과와의 관계	10	13
	· 기업체의 직원 채용 방법	14	
	· 취업 동기		15

영역	변인	문항번호	
		재학생	졸업생
취업에 관한 정보 및 상담	· 취업문제의 상담 대상 · 취업정보 수집 대상	16	
		17	
졸업후 모교와의 관계	· 졸업후 모교와의 관계		18
직장에서 동창과의 관계	· 직장에서 동창과의 관계		19
학교에 바라는 사항	· 학교에 바라는 사항	19	20

다. 資料 處理

수집된 자료는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나누어 각각 電算 처리하였다. 재학생의 경우 단과대학별, 학년별, 성별로 나누고, 졸업생의 경우는 단과대학별, 졸업 연도별, 성별로 나눈 뒤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첫째, 職業意識 및 就業 實態에 관련된 각 변인은 응답자의 반응수에 따라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교에 대한 요구는 요구사항별로 순위에 따른 빈도를 구하고 그 순위에 가중치를 주어 점수화한 다음 우선 순위를 구하였다.

2. 就業 對策 懇談會

본 연구의 실질적인 效果를 거두기 위하여 각 단과대학의 학생과, 학생처의 장학 담당, 기업체의 인사 담당, 졸업생 취업자 및 재학생 등이 참석한 懇談會를 개최하고 졸업생의 就業 對策 및 재학생의 就業 指導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였다.

3. 研究의 制限點

본 연구는 調査 對象, 調査 內容, 대안 마련 등에서 다음과 같은 制限點이 있다.

첫째, 졸업생 대상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제주대학교 졸업생의 職場 所在地가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 분포되었으리라고 보나, 그 소재 파악이 어려워 주로 제주 지역에 중점을 두어 조사하였다.

둘째, 졸업생의 경우, 현재의 就業 實態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職業意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재학생과의 職業意識의 차이를 전반적으로 밝혀내지 못하였다.

셋째, 就業 對策 마련을 위한 懇談會의 대상 중 기업인들의 경우, 제주지역 기업인에 한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업인이 참석하지 못하여 전국적인 就業 對策에 취약성을 갖고 있다.

IV. 研究 結果 및 解釋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대체로 경제적인 貧困, 학력고사 성적의 저조 등으로 인해 본 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濟大 學生生活研究, 10輯, 1988). 또한 地域的인 특수성 때문에 재학중 就業에 대한 情報가 어둡고, 학교와 기업체간의 다양한 協同體制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졸업 후의 進路를 결정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학교 당국이나 지역사회 자체에서도 적절한 就業 對策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재학생을 중심으로한 就業 對策 研究에서 벗어나, 졸업생과 재학생을 동시에 研究의 對象으로 하여 재학생의 職業意識과 졸업생의 職業實態를 일련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1. 職業에 관한 價値觀

가. 職業을 갖는 目的

제주대학교 재학생들이 職業을 갖는 주요 목적을 보면 다음 <表Ⅱ-1>과 같다.

<表Ⅱ-1>의 재학생의 職業을 갖는 주요 目的을 보면, 전체적으로 經濟的 安定이 36.8%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을 통한 自我實現이 33.2%, 社會的 地位 및 安定이 15.4%, 社會的 使命 및 奉仕가 11.2% 순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대학별, 학년별로 보면 전체적인 경향과 별 차이가 없으나,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경제적인 안정에 남학생은 41.1%, 여학생은 32.9%를 보인 반면, 自我實現에서는 남학생이 24.8%, 여학생이 41.1%를 보이고 있어서 여학생들의 自我實現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傳統的으로 여성은 家事活動과 아내, 어머니로서 남편과

자녀를 보살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점차 남성과 대등한 입장에서 自我를 實現하
려함을 알 수 있다.

〈表Ⅱ-1〉 職業을 갖는 主要 目的 (단위: %)

목적 대학·학년·성별	경제적 안정	일을 통한 자아실현	사회적 지위 및 안정	사회적 사명 및 봉사	기 타	전 체
인 문 대 학	36.9	37.9	9.7	8.7	6.8	16.5
법 정 대 학	37.6	21.8	17.8	20.8	2.0	16.2
경 상 대 학	28.6	36.9	27.4	7.1	0	13.5
사 범 대 학	29.9	42.3	9.3	13.4	5.2	15.5
농 과 대 학	37.1	38.6	11.4	10.0	2.9	11.2
해양과학대학	48.5	25.7	12.9	8.9	4.0	16.2
이 공 대 학	38.2	30.9	22.1	7.4	1.5	10.9
1	32.2	35.5	19.1	7.2	5.9	24.4
2	38.9	32.1	13.0	13.0	3.1	26.0
3	38.6	32.7	14.9	10.9	3.0	32.4
4	37.0	32.4	14.8	14.8	0.9	17.3
남	41.1	24.8	18.6	12.4	2.9	49.0
여	32.9	41.1	12.3	10.1	3.8	50.6
전 체	36.8	33.2	15.4	11.2	3.4	100.0

나. 가장 理想的인 職業

재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理想的인 職業은 다음 〈表Ⅱ-2〉와 같다.

〈表Ⅱ-2〉의 재학생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직업을 보면, 自立할 수 있는 직업이 28.6%, 趣味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이 22.1%, 奉仕하는 직업의 20.0%, 남의 尊敬을 받는 직업이 13.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權力을 갖는 직업이 3.7%로 최하위를 나타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대부분의 대학이 전체적인 경향과 비슷하나 경상대학은 남의 尊敬을 받는 職業에 32.2%의 반응을 보여 타 대학과는 그 의식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년별로는 별 차이가 없으며, 남녀별로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自立할 수 있는 직업과 趣味를 살릴 수

있는 직업에 더 높은 반응을 보여 주어 <表II-1>과 같은 職業意識 性向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表II-2>

가장 理想的인 職業

(단위 : %)

이상적 직업 대학·학년·성별	남의 존반을 경는 직업	권력 을 가 지 는 직업	취 미 를 살 리 는 직업	수 입 이 많 은 직업	실 적 위 험 이 작 은 직업	봉 사 하 는 직업	자 립 할 수 있 는 직업	전 체
인 문 대 학	4.9	1.9	29.1	5.8	1.9	21.4	35.0	16.5
법 정 대 학	9.9	7.9	19.8	6.9	7.9	24.8	22.8	16.2
경 상 대 학	32.2	2.4	19.0	4.8	1.2	9.5	31.0	13.5
사 범 대 학	14.4	3.1	17.5	6.2	6.2	27.8	24.7	15.5
농 과 대 학	7.1	2.9	28.6	7.1	5.7	21.4	27.1	11.2
해양과학대학	14.9	3.0	21.8	10.9	3.0	15.8	30.7	16.2
이 공 대 학	16.2	4.4	19.1	8.8	5.9	17.6	27.9	10.9
1	15.1	3.9	26.3	4.6	4.6	20.4	25.0	24.4
2	9.3	4.3	21.6	7.4	3.7	20.4	33.3	26.0
3	13.9	3.0	23.8	5.9	5.4	17.8	30.2	32.4
4	19.4	3.7	13.9	13.0	3.7	23.1	23.1	17.3
남	16.4	4.9	19.6	6.9	5.6	22.2	24.5	49.0
여	11.5	2.3	24.7	7.6	3.5	18.0	32.6	50.9
전 체	13.9	3.7	22.1	7.2	4.5	20.0	28.6	100.0

재학생의 理想的인 職業이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이나 취미를 살리는 職業, 奉仕하는 職業에 높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들의 職業意識이 오늘날의 사회 변화 속에서 남의 尊敬을 받거나 權力을 갖는 職業이 安定的이거나 發展的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보며, 따라서 자신의 適性을 살려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

다. 職業選擇의 基準

職業을 選擇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모두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음 <表II-3>, <表II-4>와 같다.

〈表Ⅱ-3〉 재학생이 고려하고 있는 職業選擇의 基準

(단위: %)

직업선택 기준 대학·학년·성별	직업의 안정성	직업의 발전성	수입성	전 공 적합성	적성 및 흥미	능력 여부	사 회 공헌도	전 체
인 문 대 학	22.3	11.7	2.9	3.9	42.7	7.8	8.7	16.5
법 정 대 학	23.8	13.9	5.9	9.9	26.7	10.9	8.9	16.2
경 상 대 학	23.8	25.0	6.0	9.5	31.0	2.4	2.4	13.5
사 범 대 학	23.7	10.3	5.2	8.2	32.0	11.3	9.3	15.5
농 과 대 학	30.0	15.7	1.4	8.6	30.0	11.4	2.9	11.2
해양과학대학	28.7	17.8	12.9	5.9	22.8	8.9	3.0	16.2
이 공 대 학	25.0	16.2	10.3	13.2	17.6	7.4	10.3	10.9
1	23.7	13.8	7.2	8.6	36.2	5.9	4.6	24.4
2	22.2	16.7	9.3	6.2	28.4	12.3	4.9	26.0
3	27.7	13.4	3.0	6.9	32.2	10.9	5.9	32.4
4	26.9	20.4	7.4	13.0	16.7	2.8	13.0	17.3
남	29.1	15.4	7.2	7.8	25.5	8.2	6.9	49.0
여	21.5	15.8	5.7	8.5	33.3	9.2	6.1	50.9
전 체	25.2	15.5	6.4	8.2	29.4	8.7	6.6	100.0

〈表Ⅱ-3〉의 재학생이 고려하고 있는 職業選擇의 主要한 基準을 보면, 適性 및 興味가 29.4%, 職業의 安定性이 25.2%, 職業의 發展性이 15.5%, 자신의 能力이 8.7%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社會의 貢獻度가 6.6%, 收入性이 6.4%로 최하위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학년별, 남녀별로 보면, 전체 경향과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경향은 재학생의 직업의식이 단순한 收入性보다는 자신의 適性을 중시하고, 安定되고 發展性 있는 직업을 더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Ⅱ-4〉에 의하면, 졸업생들도 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職業選擇에 있어서 適性 및 興味에 맞는 직업이 32.2%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發展性이 28.9%, 安定性이 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신의 能力(7.4%), 收入性(3.7%), 社會 貢獻度(2.5%)는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재학생들과 거의 공통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사회과학대학(법정대, 경상대)은 전반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인 適性 및 興味에 25.3%

의 반응을 보인 반면, 發展性에는 38.6%라는 높은 반응을 보여 주어 타 대학과의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남녀별로 보면, 남자는 직업의 安定性(21.9%)이나 適性 및 興味(24.4%)보다 發展性(34.4%)에, 여자는 發展性(18.8%)이나 安定性(14.6%)보다 適性 및 興味(47.5%)에 더 높은 반응을 보여 남녀의 직업의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졸업연도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으나, 1988년도 졸업생들의 경우 適性 및 興味(43.9%)에 높은 반응을 보여 주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表Ⅱ-4> 卒業生の 職業選擇 基準 (단위: %)

직업선택 기준 대학·성별· 졸업연도	안정성	발전성	수입성	전공적 합성	적성 및 흥미	능력 여부	사 회 공헌도	전 체
인 문 대 학	22.2	22.2	2.8	0.0	47.2	5.6	0.0	14.9
사회과학대학	21.7	38.6	6.0	2.4	25.3	4.8	1.2	34.3
사 범 대 학	16.1	22.6	0.0	12.9	41.9	6.5	0.0	12.8
농 과 대 학	25.0	12.5	0.0	12.5	37.5	0.0	12.5	3.3
해양과학대학	13.8	20.7	3.4	10.3	27.6	17.2	6.9	12.0
이 공 대 학	18.2	29.1	3.6	7.3	29.1	9.1	3.6	22.7
1984. 2월	19.6	32.6	2.2	8.7	26.1	4.3	6.5	19.0
1985. 2월	24.0	28.0	0.0	6.0	32.0	6.0	4.0	20.7
1986. 2월	13.6	25.0	4.5	11.4	29.5	13.6	2.3	18.2
1987. 2월	17.8	42.2	4.4	2.2	26.7	6.7	0.0	18.6
1988. 2월	21.1	19.3	7.0	1.8	43.9	7.0	0.0	23.6
남	21.9	34.4	4.4	4.4	24.4	8.1	2.5	66.1
여	14.6	18.8	2.5	8.8	47.5	6.3	2.5	33.9
전 체	19.4	28.9	3.7	5.8	32.2	7.4	2.5	100.0

2. 就業 實態

본 연구의 調査 對象이 된 최근 5년간의 졸업생수는 총 6,153명이며, 그 중 11%인 700명에게 質問紙를 조사한 결과 應答者數는 242명이었다. 본 調査 對象者에게는 就業 전반에

관한 實態, 즉 職場 所在地, 就業 經路, 종사하고 있는 職種, 직장 勤務 年數, 월 평균 수입, 직업과 전공과의 일치 정도, 轉職 經驗, 轉職을 원하는 이유, 앞으로의 전직 희망, 就業 준비상의 애로에 관한 의견을 調査하였다.

본 實態調査에 앞서 최근 5년간의 제주대학교 졸업생의 전반적인 就業 實態를 보면 <表 III-1>과 같다.

<表 III-1> 졸업생의 就業 現況 (1984年~1988年) (단위:명/()안은%)

졸업연도	1984	1985	1986	1987	1988	전 체
구 분 / 졸업생수	837	1,143	1,306	1,391	1,476	6,153
공 무 원	58 (6.9)	80 (6.9)	113 (8.7)	86 (6.1)	96 (6.5)	433 (7.0)
기 업 체	145 (17.3)	122 (10.6)	195 (14.9)	248 (17.8)	268 (18.1)	978 (15.8)
금 융 업	30 (3.6)	49 (4.3)	51 (3.9)	36 (2.6)	44 (3.0)	210 (3.4)
언 론	9 (1.1)	9 (1.0)	10 (1.0)	12 (1.0)	39 (2.6)	79 (1.4)
교 직	159 (18.9)	154 (13.4)	132 (10.1)	116 (8.3)	73 (4.9)	634 (10.3)
간 호 보 조 원	-	-	1 (0.1)	-	3 (0.2)	4 (0.1)
유치-유아원	-	-	-	2 (0.1)	-	2 (0.1)
자 영 종 사	36 (4.3)	68 (5.9)	66 (5.0)	38 (2.7)	76 (5.1)	284 (4.6)
진 학	21 (2.5)	37 (3.2)	39 (3.0)	29 (2.1)	40 (2.7)	166 (2.6)
군 입 대	32 (3.8)	43 (3.8)	156 (11.9)	154 (11.0)	149 (10.0)	534 (8.7)
기 타	90 (10.7)	107 (9.4)	94 (7.2)	63 (4.5)	104 (7.0)	458 (7.5)
전 체	580 (69.2)	669 (58.5)	857 (65.6)	784 (56.3)	892 (60.3)	3,788 (61.6)

<表 III-1>은 1984년부터 1988년까지의 제주대학교 졸업생의 就業 現況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전체 졸업자에 대한 5년간의 平均 就業率은 61.6%이나 진학, 군입대, 기타를 제외한 순수 就業率은 46.5%가 된다. 이러한 就業 現況을 職種別(진학, 군입대, 기타 제외)로 보면, 企業體가 15.8%로 가장 많고, 다음이 敎職 10.3%, 公務員 7.0%, 自營從事 4.6%, 金融業 3.4%, 言論 1.4%, 그리고 간호보조원과 유치원(유아원 포함)이 각각 0.1%이다.

가. 職場所在地

본고 卒業生들이 就業하고 있는 職場所在地를 보면 다음 <表Ⅲ-2>와 같다.

<表Ⅲ-2> 職 場 所 在 地 (단위 : %)

대학· 졸업연도·성별	직장 소재지	제 주 도	서 울	직 할 시	기타 지역	전 체
인 문 대 학		100.0	0.0	0.0	0.0	14.9
사회과학대학		84.3	10.8	3.6	1.2	34.3
사 범 대 학		90.3	3.2	3.2	3.2	12.8
농 과 대 학		87.5	12.5	0.0	0.0	3.3
해양과학대학		79.3	6.9	3.4	10.3	12.0
이 공 대 학		96.4	1.8	0.0	1.8	22.7
1984.2월		84.8	8.7	2.2	4.3	19.0
1985.2월		86.0	10.0	4.0	0.0	20.7
1986.2월		90.9	2.3	2.3	4.5	18.2
1987.2월		91.1	4.4	2.2	2.2	18.6
1988.2월		94.7	3.5	0.0	1.8	23.6
남		89.4	6.9	1.3	2.5	66.1
여		90.2	3.7	3.7	2.4	33.9
전 체		89.7	5.8	2.1	2.5	100.0

<表Ⅲ-2>의 제주대학교 卒業生의 職場所在地를 보면, 제주도가 89.7%로 가장 많고, 서울이 5.8%, 기타 지역이 2.5%, 직할시가 2.1%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를 大學別로 보면, 전 대학 졸업자의 약 80% 이상이 제주도에 職場을 두고 있으며, 특히 人文大學은 調査者 전원이 제주 지역에 職場을 두고 있다. 한편 男女別로 보면 별 차이가 없으나, 졸업연도별로 보면, 점차 타 지역의 就業者 數가 줄고 제주도 지역의 就業者 數가 增加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研究의 制限點에서도 밝혔듯이 調査 對象者의 소재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주로 제주 지역에서 就業에 종사하는 자들이 應答한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주도가 안고 있는 立地的 條件이 타 지역에 비해 불리하지만, 점차 각종 産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과,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학 졸업자를 우선으로 就業시키려고 하는 地域性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나. 就業 經路

〈表Ⅲ-3〉의 졸업생들의 就業 經路에 대한 반응을 보면, 전체적으로 公開 募集이 43.8%로 가장 높고, 기타 20.2%, 推薦과 公開 募集 병행이 19.4%, 推薦이 15.3%, 自家 經營이 1.2%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其他의 경우는 부모나 친지의 주선일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범대학의 경우는 教育委員會의 發命을 의미한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인문대학은 공개 모집(25.0%)보다 教授나 學校의 推薦(33.3%)이 더 높은 반응을 보였고, 사범대학은 기타, 즉 教育위원회 的 發命(58.1%)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그의 대학은 공개 모집에 보다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를 男女別로 보면, 남자 졸업자는 推薦(15.6%)보다 공개 모집(53.1%)에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여자 졸업자는 기타(32.9%)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表Ⅲ-3〉 就 業 經 路 (단위 : %)

취업 경로 대학· 졸업연도·성별	교수 및 학교추천	공개 모집	추천·공개 모집 병행	자기 경영	기 타	계
인 문 대 학	33.0	25.0	22.2	2.8	16.7	14.9
사회과학대학	10.8	49.4	24.1	1.2	14.5	34.3
사 범 대 학	6.5	29.0	6.5	0.0	58.1	12.8
농 과 대 학	0.0	37.5	37.5	0.0	25.0	3.3
해양과학대학	27.6	44.8	20.7	0.0	6.9	12.0
이 공 대 학	10.9	56.4	14.5	1.8	16.4	22.7
1984.2월	15.2	39.1	17.4	0.0	28.3	19.0
1985.2월	22.0	52.0	12.0	2.0	12.0	20.7
1986.2월	13.6	38.6	18.2	2.3	27.3	18.2
1987.2월	2.2	55.6	26.7	2.2	13.3	18.6
1988.2월	21.1	35.1	22.8	0.0	21.1	23.6
남	15.6	53.1	16.9	0.6	13.8	66.1
여	14.6	25.6	24.4	2.4	32.9	33.9
계	15.3	43.8	19.4	1.2	20.2	100.0

다. 從事하고 있는 職種

졸업생들이 현재 從事하고 있는 職種을 보면 다음 <表Ⅲ-4>와 같다.

<表Ⅲ-4> 從 事 職 種 (단위 : %)

종사 직종 대학· 졸업연도·성별	사무· 관리직	교육· 연구직	기획· 조사직	광고· 홍보직	생산· 기술직	영업직	전산직	기 타 특수직	전 체
인 문 대 학	44.4	30.6	2.8	5.6	0.0	5.6	0.0	11.1	14.9
사회과학대학	50.6	3.6	3.6	2.4	0.0	26.5	0.0	13.3	34.3
사 범 대 학	12.9	77.4	0.0	0.0	0.0	3.2	3.2	3.2	12.8
농 과 대 학	62.5	0.0	12.5	0.0	12.5	12.5	0.0	0.0	3.3
해양과학대학	27.6	24.1	3.4	3.4	17.2	3.4	3.4	17.2	12.0
이 공 대 학	32.7	5.5	3.6	0.0	18.2	9.1	16.4	14.5	22.7
1984.2월	28.3	21.7	10.9	2.2	8.7	8.7	6.5	13.0	19.0
1985.2월	40.0	18.0	4.0	4.0	4.0	14.0	4.0	12.0	20.7
1986.2월	29.5	29.5	0.0	2.3	13.6	9.1	6.8	9.1	18.2
1987.2월	57.8	11.1	0.0	0.0	2.2	20.0	0.0	8.9	18.6
1988.2월	36.8	19.3	1.8	1.8	5.3	14.0	5.3	15.8	23.6
남	36.3	14.4	3.1	2.5	7.5	16.9	5.6	13.8	66.1
여	42.7	30.5	3.7	1.2	4.8	6.1	2.4	8.5	33.9
전 체	38.4	19.8	3.3	2.1	6.6	13.2	4.5	12.0	100.0

<表Ⅲ-4>의 졸업생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을 전체적으로 보면, 事務·管理職이 38.4%로 가장 많고, 教育·研究職이 19.8%, 營業職이 13.2%, 其他 特殊職이 12.0%로 나타났다. 이를 大學別로 보면, 인문대학 졸업생은 주로 事務·管理職(44.4%), 教育·研究職(30.6%)에 종사하고 있고, 사회과학대학(법정대, 경상대)은 주로 事務·管理職(50.6%), 營業職(26.5%)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범대학은 教育·研究職(77.4%)과 事務·管理職(12.9%)에, 농과대학은 事務·管理職(62.5%), 企劃·調査職(12.5%), 生産·技術職(12.5%), 營業職(12.5%)에, 해양과학대학은 事務·管理職(27.6%), 教育·研究職(24.1%), 生産·技術職(17.2%), 其他 特殊職(17.2%)에, 이공대학은 事務·管理職(32.7%), 生産·技術職(18.2%), 電算

職(16.4%)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서 각 대학별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어느 대학이든 事務·管理職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다. 이를 男女別로 보면, 남자 졸업생은 주로 事務·管理職(36.3%), 營業職(16.9%), 教育·研究職(14.4%)에 종사하고 있고, 여자 졸업생은 事務·管理職(42.7%), 教育·研究職(30.5%), 其他 特殊職(8.5%)에 종사하고 있다. 졸업연도별로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 있지 않다.

라. 매월 平均 收入

졸업생들이 받고 있는 매월 平均 收入은 다음 <表Ⅲ-5>와 같다.

<表Ⅲ-5> 平均 月 收 入 (단위: %)

월수입 대학· 졸업연도·성별	200,000원 미만	200,000~ 300,000	300,000~ 400,000	400,000~ 500,000	500,000원 이상	전 체
인 문 대 학	27.8	30.6	25.0	16.7	0.0	14.9
사회과학대학	4.8	10.8	31.3	22.9	30.1	34.3
사 범 대 학	0.0	16.1	45.2	29.0	9.7	12.8
농 과 대 학	12.5	25.0	37.5	25.0	0.0	3.3
해양과학대학	0.0	27.6	34.5	20.7	17.2	12.0
이 공 대 학	3.6	27.3	30.9	29.1	9.1	22.7
1984.2월	0.0	19.6	30.4	23.9	26.1	19.0
1985.2월	4.0	16.0	30.0	30.0	20.0	20.7
1986.2월	2.3	18.2	40.9	25.0	13.6	18.2
1987.2월	15.6	20.0	35.6	17.8	11.1	18.6
1988.2월	12.3	28.1	28.1	22.8	8.8	23.6
남	1.9	16.9	30.6	27.5	23.1	66.1
여	17.1	28.0	36.6	17.1	1.2	33.9
전 체	7.0	20.7	32.6	24.0	15.7	100.0

<表Ⅲ-5>에 의하면 매월 30만원~40만원을 받는 사람이 32.6%로 가장 많고, 40만원~50만원이 24.0%, 20만원~30만원이 20.7%, 50만원 이상이 15.7%, 20만원 이하가 7.0%의 순으로서 과반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월 평균 30만원~50만원을 받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졸업자로서 월 2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갖는 사람도 7.0%나 볼 수 있다.

이를 大學別로 보면, 3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경우, 사회과학대학 졸업자가 84.3%로 제일 많고, 다음이 사범대학(83.9%), 해양과학대학(72.4%), 이공대학(69.1%), 농과대학(62.5%), 인문대학(4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男女別로 보면, 남자는 30만원~50만원 이상이 86.6%이나 여자는 54.9%로 나타났다, 반면에 20만원 미만에서 남자는 1.9%이나 여자는 17.1%나 되어 직장에서의 女姓 취업자의 低賃金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편 卒業年度別로 보면, 졸업연도에 따라 수입의 수준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마. 職業과 專攻學科와의 一致 程度

졸업자의 현재 직업과 대학에서의 전공학과와의 일치 정도는 다음 <표Ⅲ-6>과 같다.

<表Ⅲ-6> 職業과 專攻과의 관계 (단위 : %)

일치 정도 대학· 졸업연도·성별	일치한다	어느 정도 일치한다	전혀 일치 하지 않음	전 체
인 문 대 학	30.6	25.0	44.4	14.9
사 회 과 학 대 학	36.1	41.0	22.9	34.3
사 범 대 학	64.5	19.4	16.1	12.8
농 과 대 학	37.5	37.5	25.0	3.3
해 양 과 학 대 학	34.5	31.0	34.5	12.0
이 공 대 학	32.7	36.4	30.9	22.7
1984.2월	45.7	21.7	32.6	19.0
1985.2월	40.0	26.0	34.0	20.7
1986.2월	50.0	34.1	15.9	18.2
1987.2월	28.9	37.8	33.3	18.6
1988.2월	28.1	45.6	26.3	23.6
남	40.0	30.6	29.4	66.1
여	34.1	39.0	26.8	33.9
전 체	38.0	33.5	28.5	100.0

〈表 Ⅲ-6〉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현재 職業과 專攻學科와의 관계가 일치한다에 38.0%, 어느 정도 일치한다에 33.5%,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에 28.5%의 반응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 재학 시절의 專攻이 職業과 어느 정도 일치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인문대학 졸업자(44.4%)는 타 대학 졸업자에 비해 전혀 일치하지 않는 職業에 많이 從事하고 있으며, 사범대학 졸업자(64.5%)와 사회과학대학 졸업자(36.1%)는 비교적 專攻과 일치하거나 어느 정도 일치한 職業에 從事하고 있고, 그 밖의 대학 졸업자는 專攻과의 일치와 불일치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를 卒業年度別로 보면, 1987년과 1988년 졸업자의 경우는 그 이전 졸업자에 비해 專攻學科와의 일치 정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 주고 있어 점차 專攻學科와 관련된 就業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男女別로는 별 차이가 없다.

바. 轉職 經驗

현재 就業을 하고 있는 졸업생중 직장을 옮긴 경험에 대한 반응은 다음 〈표 Ⅲ-7〉과 같다.

〈表 Ⅲ-7〉 轉 職 經 驗 (단위 : %)

전직 경험 대학·졸업연도·성별	있 음	없 음	전 체
인 문 대 학	19.4	80.6	14.9
사 회 과 학 대 학	19.3	80.7	34.3
사 범 대 학	16.1	83.9	12.8
농 과 대 학	12.5	87.5	3.3
해 양 과 학 대 학	24.1	75.9	12.0
이 공 대 학	20.0	80.0	22.7
1984.2 월	23.9	76.1	19.0
1985.2 월	24.0	76.0	20.7
1986.2 월	11.4	88.6	18.2
1987.2 월	24.4	75.6	18.6
1988.2 월	14.0	86.0	23.6
남	22.5	77.5	66.1
여	13.4	84.1	33.9
전 체	19.4	80.6	100.0

〈表Ⅲ-7〉에 의하면 전체 就業者 중 19.4%가 轉職 經驗을 갖고 있다. 이를 大學別로 보면, 해양과학대학 졸업자가 24.1%로 轉職 經驗이 가장 많으며, 농과대학 졸업자(12.5%)와 사범대학 졸업자(16.1%)가 비교적 轉職 經驗이 적어 안정된 직장에 있음이 나타났다. 이를 卒業年度別로 보면 별 차이가 없으며, 男女別로 보면, 남자는 轉職 經驗이 22.5%인데 비해 여자는 13.4%로 남자보다 轉職率이 낮았다.

사. 轉職 理由

본 문항에서는 〈표Ⅲ-7〉에 응답한 자만이 반응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Ⅲ-8〉과 같다.

〈表Ⅲ-8〉 轉 職 理 由 (단위 : %)

전직 이유 대학· 졸업연도·성별	수입이 적어서	능력 발휘 기회가 적 어서	원하지 않 았던 직장 이므로	직장 분 위기가 나 빠서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과 흥미가 없어서	전공과 관련이 적어서	전 체
인 문 대 학	0.0	0.0	2.1	2.1	8.5	2.1	0.0	14.9
사회과학대학	4.3	8.5	2.1	4.3	10.6	4.3	0.0	34.0
사 범 대 학	2.1	2.1	4.3	0.0	2.1	0.0	0.0	10.6
농 과 대 학	0.0	0.0	0.0	0.0	0.0	2.1	0.0	2.1
해양과학대학	0.0	4.3	6.4	2.1	2.1	0.0	0.0	14.9
이 공 대 학	0.0	2.1	8.5	0.0	10.6	0.0	2.1	23.4
1984.2월	2.1	0.0	8.5	0.0	8.5	2.1	2.1	23.4
1985.2월	0.0	6.4	8.5	2.1	6.4	2.1	0.0	25.5
1986.2월	0.0	2.1	6.4	0.0	2.1	0.0	0.0	10.6
1987.2월	2.1	6.4	0.0	2.1	8.5	4.3	0.0	23.4
1988.2월	2.1	2.1	0.0	4.3	8.5	0.0	0.0	17.0
남	0.0	17.0	17.0	6.4	25.5	8.5	2.1	76.6
여	6.4	0.0	6.4	2.1	8.5	0.0	0.0	23.4
전 체	6.4	17.0	23.4	8.5	34.0	8.5	2.1	100.0

〈表Ⅲ-8〉의 轉職 理由를 보면, 職業의 將來性이 없어서에 34.0%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던 職場에 23.4%, 能力 發揮의 기회가 적어서에 17.0%의 순으로 나타났고, 수입이 적어서에 6.4%, 專攻과 관련이 적어서에는 2.1%로 낮은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직장에 있어서 우선적인 조건은 〈表Ⅱ-4〉와 같이 將來性(발전성)

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大學別로 보면, 특히 사회과학대학·이공대학 졸업자의 경우 將來性이 없어서 10.6%의 반응을 보여서 타 대학 출신보다 불만족스런 직장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卒業年度에 따라서는 轉職 理由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男女別로 보면, 남자 졸업자는 轉職을 한 이유로 將來性이 없어서 25.5%, 能力 發揮의 기회가 적어서 17.0%, 원하지 않았던 직장이므로 17.0%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 졸업자는 將來性이 없어서 8.5%, 수입이 적어서 6.4%, 원하지 않았던 직장이므로 6.4%의 순으로 나타나 남녀 졸업자 간에 다소 다른 전직 이유를 보여 주고 있다.

마. 轉職 希望

졸업생들은 앞으로 현재의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를 원하는가에 대해 다음 <표 III-9>와 같이 응답하였다.

<表 III-9> 轉 職 希 望 (단위 : %)

전직 희망 대학· 졸업년도·성별	원 함	원하지 않음	모르겠음	전 체
인 문 대 학	41.7	25.0	33.3	14.9
사회과학대학	26.5	51.8	21.7	34.3
사 범 대 학	22.6	71.0	6.5	12.8
농 과 대 학	12.5	62.5	25.0	3.3
해양과학대학	17.2	44.8	37.9	12.0
이 공 대 학	21.8	38.2	40.0	22.7
1984.2월	17.4	43.5	39.1	19.0
1985.2월	26.0	56.0	18.0	20.7
1986.2월	18.2	56.8	25.0	18.2
1987.2월	28.9	40.0	31.1	18.6
1988.2월	35.1	38.6	26.3	23.6
남	21.9	48.1	30.0	66.1
여	32.9	42.7	24.4	33.9
전 체	25.6	46.3	28.1	100.0

〈表Ⅲ-9〉의 졸업생들의 앞으로의 轉職 希望을 보면, 轉職을 希望한다에 25.6%의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表Ⅲ-7〉의 轉職 經驗(19.4%)을 가진 자보다 더 높은 반응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취업자가 기회가 주어지면 轉職하겠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이를 卒業年度別로 보면, 1988년 졸업자가 35.1%, 1987년 졸업자가 28.9%, 1985년 졸업자가 26.0%, 1986년 졸업자가 18.2%의 반응을 보여, 전반적으로 직장근무 연수가 짧을수록 轉職 希望者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점차 就業의 문이 좁아짐에 따라 개인의 適性이나 能力, 직업의 발전성을 고려한 生涯의인 면을 고려하기보다 우선 취업부터 해야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男女別로 보면, 轉職 希望에 대해 남자 졸업자는 21.9%, 여자 졸업자는 32.9%를 나타내어 여자 졸업자의 轉職 希望率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表Ⅲ-7〉의 전직 경험 여부와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현재까지의 여자 졸업자의 轉職率이 남자 졸업자보다 낮았으나 앞으로는 더 많은 전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表Ⅲ-8〉의 여자 졸업자의 전직 이유가 수입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보다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자. 職場의 職務 滿足

본 문항은 졸업생의 현 직장에 대한 직무 만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요인으로는 報酬, 作業 條件, 職員 福祉, 上司와의 관계, 同僚와의 관계, 자신의 創意力 發揮이며, 각 요인별로 나타난 직무 만족 정도는 다음 〈表Ⅲ-10〉과 같다.

〈表Ⅲ-10〉 卒業生の 職場 職務의 滿足度

(단위: %)

만족 정도 요인별	(단위: %)					
	아 주 만 족	비교적 만 족	보 통	약 간 불 만	아 주 불 만	전 체
보 수	3.3	31.8	34.7	24.0	6.2	100
작 업 조 건	7.8	30.2	40.1	17.4	4.5	100
직 원 복 지	3.7	24.4	41.7	24.0	6.2	100
상사와의 관계	8.7	36.8	43.7	8.3	2.5	100
동료와의 관계	12.0	46.7	33.8	5.4	2.1	100
창의력 발휘	7.8	24.4	37.6	20.7	9.5	100
전 체	7.2	32.4	38.6	16.6	5.2	100

〈表Ⅲ-10〉에서 졸업생의 직장에서의 職務滿足 정도를 보면, 보통이다가 38.6%로 가장 높으며, 만족하다(39.6%)가 불만족하다(21.8%)보다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의 6 가지 요인중 가장 높은 滿足度를 보인 것은 同僚와의 관계(58.7%)로서 본교 졸업자가 직장에서의 同僚와는 비교적 만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직장의 上司와의 관계가 45.5%이고, 作業條件 38.0%, 報酬 35.1%, 創意力發揮 32.4%, 職員 福祉 28.1%의 순으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차. 就業 準備上의 隘路

본교 졸업생들이 就業하기전 그들의 就業 準備에 따른 애로점은 다음 〈表Ⅲ-11〉과 같다.

〈表Ⅲ-11〉 卒業生の 就業 準備上의 애로점 (단위: %)

애로사항 대학· 졸업연도·성별	취업 준비 미흡	전공에 적 합한 직장 부족	성에 대 한 차별	취업 정 보 부족	기업체의 대학 차별	전 체
인 문 대 학	25.0	44.4	8.3	16.7	5.6	14.9
사회과학대학	28.9	18.1	3.6	30.1	19.3	34.3
사 범 대 학	38.7	29.0	16.1	9.7	6.5	12.8
농 과 대 학	50.0	37.5	12.5	0.0	0.0	3.3
해양과학대학	37.9	24.1	3.4	17.2	17.2	12.0
이 공 대 학	16.3	32.7	5.5	27.3	18.2	22.7
1984.2월	23.9	26.1	8.7	23.9	17.4	19.0
1985.2월	28.0	30.0	4.0	26.0	12.0	20.7
1986.2월	38.7	29.5	6.8	9.1	15.9	18.2
1987.2월	22.2	26.7	6.7	26.7	17.8	18.6
1988.2월	29.8	28.1	7.0	24.6	10.5	23.6
남	26.3	28.1	3.1	23.8	18.8	66.1
여	32.9	28.0	13.4	19.5	6.1	33.9
전 체	28.5	28.1	6.6	22.3	14.5	100.0

〈表Ⅲ-11〉의 졸업생의 就業 準備上의 隘路點을 보면, 자신의 就業 準備 미흡이 28.5%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전공에 적합한 직장 부족이 28.1%, 就業 情報 부족이 22.3%, 企業體의 대학 차별이 14.5%, 姓에 대한 차별이 6.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취업 준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취업 준비에 대비한 自身의 能力 여부가 가장 큰 문제이며, 또한 제주대학교 졸업생에게는 전공에 맞는 직장 부족과 기업체의 大學差別이 취

업 준비상의 陰路點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특히 인문대학 졸업자는 專攻에 적합한 職場 不足(44.4%)을 가장 큰 就業 障礙로 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신의 就業 準備 미흡(25.0%)을 들고 있다. 이공대학도 인문대학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의 대학은 전체적인 경향과 비슷하다. 한편 졸업연도별, 남녀별 반응은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3. 就業에 대한 準備

가. 卒業後의 進路 計劃

在學生들의 졸업후의 進路 計劃을 보면 <表IV-1>과 같다.

<表IV-1>

卒業後 進路 計劃

(단위 : %)

진로 계획 대학·학년·성별	취 업	진 학 (대학원·유학)	구체적인 계획 없음	전 체
인 문 대 학	60.2	9.7	30.1	16.5
법 정 대 학	61.4	14.9	23.8	16.2
경 상 대 학	76.2	16.7	7.2	13.5
사 범 대 학	63.9	9.3	26.8	15.5
농 과 대 학	55.7	10.0	34.3	11.2
해양과학대학	64.4	5.9	29.7	16.2
이 공 대 학	50.0	25.0	25.0	10.9
1	54.6	13.2	32.2	24.4
2	62.3	13.5	24.1	26.0
3	65.8	10.9	23.3	32.4
4	65.7	14.8	19.4	17.3
남	59.8	14.1	26.1	49.0
여	66.1	11.1	26.0	51.0
전 체	62.1	12.5	25.4	100.0

<表IV-1>의 在學生들의 卒業後 進路 計劃을 보면, 就業을 원하는 학생이 62.1%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구체적인 計劃을 갖고 있지 않다가 25.4%, 대학원 진학 또는 유

학하려는 학생이 12.5%로 나타났다. 이를 大學別로 보면, 특히 경상대학생이 타 대학에 비해 就業 希望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76.2%), 이공대학생이 가장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50.0%). 반면에 진학에 있어서는 이공대학생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25.0%). 그리고 학년별로 보면, 큰 차이는 없으나 1,2학년에 비해 3,4학년이 就業을 더 希望하고 있으며, 진학에는 별 차이가 없다. 한편 男女別로 보면 就業의 경우, 남학생(59.8%)에 비해 여학생(66.1%)이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여성의 就業 性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現在의 就業 準備 狀態

在學生의 현재 就業 準備 狀態는 <表Ⅳ-2>와 같다.

<表Ⅳ-2> 在學生의 就業 準備 狀態 (단위 : %)

대학·학년·성별	준비 상태	거의 준비됨	전혀 준비하지 않음	전 체
인 문 대 학		11.7	88.3	16.5
법 정 대 학		29.7	70.3	16.2
경 상 대 학		34.5	65.5	13.5
사 범 대 학		18.6	81.4	15.5
농 과 대 학		22.9	77.1	11.2
해 양 과 학 대 학		24.8	75.3	16.2
이 공 대 학		36.8	63.2	10.9
1		11.8	88.2	24.4
2		11.7	88.3	26.0
3		26.2	73.8	32.3
4		60.2	39.8	17.3
남		31.4	68.6	49.0
여		18.5	81.8	50.9
전	체	24.8	75.2	100.0

<表Ⅳ-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의 就業 準備 狀態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75.2%, 거의 준비되어 있다가 24.8%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서 앞의 <表Ⅲ-11>과 같이 就業

준비상의 가장 큰 隘路가 자신의 就業 準備 不足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大學別로 보면, 거의 준비되어 있다는 반응에, 이공대학이 36.8%, 경상대학이 34.5%, 법정대학이 29.7% 순이며, 인문대학이 11.7%로 就業 準備 狀態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新規 人力을 채용하는 기업체나 은행과 같은 기관이 應試 科目으로 법학, 행정학, 경영학, 회계학, 물리학, 전자-기계학 등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學年別로 보면, 1,2 학년은 就業 準備가 되어 있다에 11.8%, 11.7%이나, 3,4 학년이 26.2%, 60.2%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就業 準備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男女別로 보면 就業 準備가 되어 있다는 반응에 대해, 남학생이 31.4%, 여학생이 18.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반응은 <表IV-1>의 장래 進路에 대한 반응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就業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서 볼 때, 就業에 대한 希望과 就業에 대한 準備 狀態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 就業 準備 時期

재학생의 就業 準備 時期는 주로 언제인가를 알아본 결과 다음 <表IV-3>과 같다.

<表IV-3>

在學生의 就業 準備 時期

(단위 : %)

준비 시기 대학·학년·성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전 체
인 문 대 학	12.6	22.3	36.9	28.2	16.5
법 정 대 학	15.8	17.8	50.5	15.9	16.2
경 상 대 학	25.0	27.4	33.3	14.3	13.5
사 범 대 학	15.5	14.4	41.2	28.9	15.5
농 과 대 학	8.6	37.1	37.1	17.1	11.2
해양과학대학	14.9	19.8	48.5	16.8	16.2
이 공 대 학	8.8	17.6	39.7	33.8	10.9
1	36.8	21.7	29.6	11.9	24.4
2	8.0	37.0	35.2	19.8	26.0
3	5.9	14.4	53.0	26.7	32.3
4	10.2	13.0	46.3	30.5	17.3
남	18.0	23.5	40.8	17.6	49.0
여	11.7	20.3	42.2	26.5	50.9
전 체	14.7	21.8	41.5	22.0	100.0

〈表Ⅳ-3〉의 在學生의 就業 準備 時期를 보면, 3 학년 때가 41.5%로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고, 4 학년 때가 22.0%, 2 학년 때가 21.8%, 1 학년 때가 14.7%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학생의 就業 準備 時期는 주로 3 학년을 전후 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表Ⅲ-11〉에서와 같이 취업 준비상 가장 큰 隘路가 자신의 취업 준비 부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就業 準備 時期는 빠를수록 좋을 것으로 본다. 한편, 대학별, 학년별, 남녀별로는 전체적인 경향과 별 차이가 없다.

라. 就業 準備와 學科 工夫와의 比重

재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할 경우 학과 공부와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반응은 다음 〈表Ⅳ-4〉와 같다.

〈表Ⅳ-4〉 就業 準備와 學科 工夫와의 比重 (단위: %)

대학·학년·성별	준비 비중	취업 준비에 비중을 더 둠	학과 공부에 비중	비슷 함	전 체
인 문 대 학		13.6	55.3	31.1	16.5
법 정 대 학		36.6	37.6	25.7	16.2
경 상 대 학		28.6	14.3	57.1	13.5
사 범 대 학		16.5	53.6	29.9	15.5
농 과 대 학		21.4	25.7	52.9	11.2
해 양 과 학 대 학		19.8	31.7	48.5	16.2
이 공 대 학		26.5	48.5	25.0	10.9
1		9.9	47.4	42.8	24.4
2		20.4	43.2	36.4	26.0
3		28.2	34.7	37.1	32.3
4		36.1	27.8	36.1	17.3
남		28.4	32.0	39.5	49.0
여		18.0	45.6	36.7	50.9
전 체		23.1	38.7	38.2	100.0

〈表Ⅳ-4〉의 재학생의 就業 準備와 學科 공부의 比重을 보면, 학과 공부에 比重을 더 둔다에 38.7%, 어느 쪽이나 비슷하게 準備한다에 38.2%, 就業 準備에 比重을 더 둔다에 23.1%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學科 工夫에 비중을 더 두거나 취업 준비와 학과 공부를 병행하는데 더 比重을 두고 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就業準備에 더 비중을 두는 대학은 경상대학(28.6%) 뿐이며, 그의 대학은 학과 공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사범대학(53.6%)

이나 인문대학(55.3%)은 타 대학에 비해 학과 공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學年別로 보면, 상급 학년일수록 就業에 比重을 두고 있고, 저학년일수록 학과 공부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한편 男女別로 보면, 남학생(28.4%)이 여학생(18.0%)에 비해 就業準備에 더 많은 比重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대학에 따라 就業準備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각 기업체나 은행의 新入社員 採用時 해당되는 專攻學科를 보면, 대체로 상경, 법정, 전자 계통이므로 자연 이 분야의 대학이 타 대학에 비해 就業門이 넓어서 就業에 대한 準備를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就業準備를 적게 하는 것은, <表Ⅳ-1>의 졸업후 進路 計劃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쪽을 더 많이 택한 것과 관련해 볼 때 장래 희망과 실제 준비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就業準備에 대한 自信感

재학생이 취업준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는 다음 <표Ⅳ-5>와 같다.

<表Ⅳ-5> 就業準備에 대한 自信感 程度 (단위: %)

자신감 정도 대학·학년·성별	자신 있음	그저 그렇다	불안하고 초조함	자신 없음	전 체
인 문 대 학	12.6	68.9	6.8	11.7	16.5
법 정 대 학	20.8	53.5	18.8	6.9	16.2
경 상 대 학	20.2	58.3	17.9	3.6	13.5
사 범 대 학	8.2	50.5	18.6	22.6	15.5
농 과 대 학	8.6	60.0	14.3	17.1	11.2
해양과학대학	21.8	58.4	11.9	7.9	16.2
이 공 대 학	11.8	67.6	11.8	8.8	10.9
1	13.8	64.5	9.2	12.5	24.4
2	18.5	53.1	17.3	11.1	26.0
3	13.9	60.9	13.4	11.9	32.4
4	14.8	58.3	18.5	8.3	17.3
남	18.6	63.4	12.4	5.6	49.0
여	12.0	55.4	16.1	16.8	50.9
전 체	15.2	59.2	14.3	11.3	100.0

위 <表IV-5>에 의하면, 재학생들은 그들의 就業 準備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 그저 그렇다는 반응에 59.2%를 나타낸 반면에 자신있다는 반응에는 겨우 15.2%이며, 불안하고 초초하다에 14.3%, 자신이 없다에 11.3%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表III-11>의 취업 준비상의 隘路點과 관련해 볼 때, 맥락의 일치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자신있다는 반응에 해양과학대학이 21.8%, 법정대학이 20.8%, 경상대학이 20.2%인 비해, 이공대학이 11.8%, 농과대학이 8.6%, 사범대학이 8.2%로 훨씬 저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자신없거나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반응에는 사범대학(41.2%)이나 농과대학(31.4%)이 타 대학에 비해 더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서 대학의 現實的인 特性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학년별, 남녀별로 보면 별 차이가 없다.

바. 在學生의 進路 決定 時期

재학생들이 그들의 進路, 즉 就業 또는 進學에 대한 결정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은 다음 <表IV-6>과 같다.

<表IV-6> 進路 決定 (就業 · 進學) 時期 (단위 : %)

진로 결정 시기 대학 · 학년 · 성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전 체
인 문 대 학	9.7	13.6	36.9	39.8	16.5
법 정 대 학	7.9	21.8	40.6	29.7	16.2
경 상 대 학	32.1	25.0	19.0	23.8	13.5
사 범 대 학	19.6	5.2	40.2	35.1	15.5
농 과 대 학	7.1	15.7	52.9	24.3	11.2
해양과학대학	6.9	16.8	49.5	26.7	16.2
이 공 대 학	11.8	25.0	38.2	25.0	10.9
1	28.3	18.4	33.6	19.8	24.4
2	5.0	21.0	39.5	33.9	26.0
3	6.9	13.9	47.0	32.2	32.
4	16.7	15.7	30.6	33.4	17.3
남	11.2	20.3	40.5	28.1	49.0
여	15.8	14.2	38.9	30.8	50.9
전 체	13.4	17.1	39.5	29.0	100.0

〈表Ⅳ-6〉에 의하면, 재학생들은 그들의 進路 決定을 3학년 때 한다가 39.5%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4학년 때 한다가 29.0%, 2학년 때 한다가 17.1%, 1학년 때 한다가 13.4%로 나타나 3,4학년 때 주로 진로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이를 大學別로 보면, 대부분의 대학이 3,4학년 때 (70% 이상) 進路를 결정하고 있으나, 경상대학은 오히려 1,2학년 때 (57.1%) 그들의 進路를 결정하고 있어 대학의 特性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이를 學年別, 男女別로 보면 별 차이가 없다.

4. 就業選擇의 要件

가. 卒業後 就業 希望 분야

재학생들이 졸업후 就業을 할 경우, 그들이 希望하는 就業分野를 보면 〈表Ⅴ-1〉과 같다.

〈表Ⅴ-1〉 卒業後 就業 希望 분야 (단위: %)

대학· 학년·성별	취업 희망 분야											전 체
	일 반 공무원	국 영 기업체	연구 기관	교직	일 반 기업체	개 인 사업 및 자 유업	외국인 업 체	언론계	금융계	직업 군인		
인 문 대 학	16.5	1.9	6.8	4.9	13.6	27.2	0.0	26.2	1.0	1.9	16.5	
법 정 대 학	38.6	11.9	7.9	2.0	5.9	16.8	2.0	8.9	1.0	5.0	16.2	
경 상 대 학	7.1	15.5	4.8	2.4	23.8	34.5	1.2	7.1	3.6	0.0	13.5	
사 범 대 학	12.4	3.1	6.2	57.7	4.1	10.3	1.0	5.2	0.0	0.0	15.5	
농 과 대 학	17.1	10.0	17.1	1.4	10.0	34.3	2.9	2.9	1.4	2.9	11.2	
해양과학대학	8.9	7.9	18.8	2.0	19.8	27.7	2.0	5.0	1.0	6.9	16.2	
이 공 대 학	2.9	17.6	23.5	7.4	23.5	20.6	0.0	1.5	1.5	1.5	10.9	
1	15.1	5.9	14.5	7.2	14.5	27.0	2.0	9.2	2.6	2.0	24.4	
2	16.0	10.5	11.7	11.7	14.8	24.1	0.0	9.3	0.6	1.2	26.0	
3	17.8	9.9	6.4	15.3	11.9	22.8	2.0	7.9	1.0	5.0	32.4	
4	11.1	10.2	16.7	11.1	15.7	22.2	0.9	9.3	0.9	1.9	17.3	
남	15.0	11.4	14.7	4.6	15.4	26.5	1.6	5.6	1.0	4.2	49.0	
여	16.1	7.0	8.5	18.7	12.7	21.5	0.9	12.0	1.6	1.3	50.6	
전 체	15.4	9.1	11.5	11.7	13.9	24.1	1.3	8.8	1.3	1.3	100.0	

〈表V-1〉의 재학생의 졸업후 就業 希望 분야를 보면, 個人事業 및 自由業이 24.1%로 가장 많고, 一般公務員 15.4%, 一般企業體 13.9%, 敎職 11.7%, 研究機關 11.5%, 國營企業體 9.1%, 言論界 8.8%의 순으로 나타났고 職業軍人(1.3%), 金融界(1.3%), 外國人業體(1.3%)는 낮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들 대학별로 反應頻度數 3위 이내인 취업 분야를 보면, 인문대학이 個人事業 및 自由業(27.2%), 言論界(26.2%), 一般公務員(16.5%)의 순위이며, 법정대학은 一般公務員(38.6%), 個人事業 및 自由業(16.8%), 國營企業體(11.9%)의 순위이다. 그리고 경상대학은 個人事業 및 自由業(34.5%), 一般企業體(23.8%), 國營企業體(15.5%)의 순위이고, 사범대학은 敎職(57.7%), 一般公務員(12.4%), 個人事業 및 自由業(10.3%)의 순위다. 또한 농과대학은 個人事業 및 自由業(34.3%), 一般公務員과 研究機關이 각각(17.1%), 國營企業體와 一般企業體(10.0%)의 순위이고, 해양과학대학은 個人事業 및 自由業(27.0%), 一般企業體(19.8%), 研究機關(18.8%)의 순위다. 이공대학은 一般企業體와 研究機關이 각각 23.5%이고 個人事業 및 自由業이 20.6%의 순위이다. 대학별로 특이할 만한 점은 재학생의 希望 就業중 '個人事業 및 自由業'이 가장 높은 選好度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학년별로 보면 별 차이가 없으며,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은 國營企業體와 研究機關에, 여학생은 敎職, 言論界 등에 각각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 企業體에 勤務할 경우 希望하는 職種

재학생들이 졸업후 企業體에 勤務할 경우 그들이 希望하는 職種은 다음 〈表V-2〉와 같다.

〈表V-2〉의 企業體內에서의 希望 職種을 보면, 敎育·研究職이 24.9%, 事務·管理職이 21.8%, 企劃·調査職이 16.3%, 廣告·弘報職이 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별로 反應 順位가 3위 이내인 職種을 보면, 인문대학이 敎育·研究職(30.1%), 企劃·調査職(18.4%), 事務·管理職(17.5%)의 順位이고, 법정대학은 事務·管理職(33.7%), 企劃·調査職(20.8%), 敎育·研究職(15.8%)의 順位이다. 그리고 경상대학이 事務·管理職(27.4%), 廣告·弘報職(25.0%), 企劃·調査職(23.8%)의 順位이고, 사범대학은 敎育·研究職(51.5%), 事務·管理職(13.4%), 企劃·調査職(12.4%)의 順位이다. 한편 농과대학은 事務·管理職(30.0%), 敎育·研究職(18.6%), 其他 特殊職(12.9%)의 順位이고, 해양과학대학은 生産·技術職과 事務·管理職이 각각 16.8%씩이고, 敎育·研究職이 15.8%이다. 그리고 이공대학은 敎育·研究職(30.9%), 生産·技術職(19.1%), 事務·管理職(14.7%)의 順位이다. 한편 남녀별로는 별 차이가 없다.

〈表 V-2〉

企業體에 就業할 경우 希望 職種

(단위: %)

희망 職種 대학·학년·성별	사무· 관리직	교육· 연구직	기획· 조사직	광고· 홍보직	생산· 기술직	영업직	전산직	기 타 특수직	전 체
인 문 대 학	17.5	30.1	18.4	15.5	4.9	2.9	0.0	10.7	16.5
법 정 대 학	33.7	15.8	20.8	9.9	3.0	1.0	3.0	12.9	16.2
경 상 대 학	27.4	9.5	23.8	25.0	1.2	7.1	4.8	1.2	13.5
사 범 대 학	13.4	51.5	12.4	7.2	3.1	3.1	7.2	2.1	15.5
농 과 대 학	30.0	18.6	11.4	10.0	7.1	8.6	1.4	12.9	11.2
해양과학대학	16.8	15.8	13.9	13.9	16.8	5.9	2.0	14.9	16.2
이 공 대 학	14.7	30.9	11.8	2.9	19.1	4.4	13.2	2.9	10.9
1	23.7	21.7	19.1	17.1	5.3	5.9	2.6	4.6	24.4
2	20.4	29.0	14.8	11.1	4.9	4.3	4.9	10.5	26.0
3	22.8	24.3	15.3	11.9	9.9	2.5	5.0	8.4	32.4
4	19.4	24.1	16.7	8.3	10.2	6.5	3.7	11.1	17.3
남	23.9	19.3	18.0	8.5	11.4	5.9	2.0	11.1	49.0
여	19.9	31.6	14.7	16.1	3.8	3.2	6.3	6.0	50.9
전 체	21.8	24.9	16.3	12.3	7.5	4.5	4.2	8.5	100.0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학년별, 남녀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대학별로 보면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은 人文-社會科學 분야의 職種인 반면,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이공대학은 人文-自然-農業-水産 등 다양한 분야의 職種을 選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재학생의 이러한 希望 職種을 졸업생들이 현재 從事하고 있는 職種과 비교해 보면 希望 職種과 現實的인 職種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選好하는 職種이 점차 변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즉 〈表 III-4〉에서 졸업생들이 현재 從事하고 있는 職種은 事務·管理職(38.4%), 教育·研究職(19.8%), 營業職(13.2%), 其他 特殊職(12.0%)의 순으로 되어 있는 반면, 재학생은 教育·研究職(24.9%), 事務·管理職(21.8%), 企劃·調査職(16.3%), 廣告·弘報職(12.3%)의 순으로 되어 있다.

다. 入學時 專攻學科의 選擇 動機

본 문항은 졸업생을 對象으로 하여 入學 당시 專攻學科를 選擇한 動機를 알아본 것으로 다음 <表 V-3>과 같다.

<表 V-3> 專攻學科 選擇 動機 (단위 : %)

대학· 졸업연도·성별	선택 동기	부모 또는 주위 권유	적성 및 흥 미검사 결과	취업 전망	고교 교사 의 권유	학력고사 점수	전 체
인 문 대 학		11.1	63.9	0.0	19.4	5.6	14.9
사회과학대학		9.6	36.1	43.4	4.8	6.0	34.3
사 범 대 학		22.6	29.0	29.0	16.1	3.2	12.8
농 과 대 학		0.0	25.0	25.0	0.0	50.0	3.3
해양과학대학		10.3	27.6	27.6	3.4	31.0	12.0
이 공 대 학		12.7	27.3	34.5	7.3	18.2	22.7
1984.2월		17.4	21.7	34.8	4.3	21.7	19.0
1985.2월		6.0	44.0	24.0	8.0	18.0	20.7
1986.2월		6.8	43.2	34.1	9.1	6.8	18.2
1987.2월		11.1	40.0	28.9	8.9	11.1	18.6
1988.2월		17.5	31.6	31.6	12.3	7.0	23.6
남		10.6	36.9	36.9	3.8	11.9	66.1
여		14.6	34.1	18.3	18.3	14.6	33.9
전 체		12.0	36.0	30.6	8.7	12.8	100.0

<表 V-3>의 졸업생의 입학 당시 專攻學科를 選擇한 動機를 보면, 適性 및 興味檢査 결과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就業 展望이 30.6%, 學力考査 點數가 12.8%, 부모 또는 주위의 勸誘가 12.0%, 敎師의 勸誘가 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專攻學科 選擇에 있어서 부모나 敎師의 勸誘보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能力이나 就業 情報에 따라 決定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대학별, 졸업연도별로 보면 전체적인 경향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남녀별로 보면, 適性 및 興味檢査 結果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가장 높은 反應을 보였으나, 就業 展望에 대해서는 남자가 36.9%, 여자가 18.3%인 반면, 敎師의 勸誘에 대해서는 여자가 18.3%, 남자가 3.8%의 反應을 보여 專攻學科 選擇 動機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라. 職業과 專攻學科와의 관계

재학생들이 원하는 職業과 專攻學科와의 관계 정도는 다음 <表V-4>와 같다.

<表V-4>

職業과 專攻學科와의 관계

(단위 : %)

전공 관련 관계 대학·학년·성별	반드시 관련	가능하면 관련	관련이 있든 없든 상관무	전 체
인 문 대 학	18.5	68.9	12.6	16.5
법 정 대 학	15.8	69.3	14.9	16.2
경 상 대 학	13.1	67.9	19.0	13.5
사 범 대 학	23.7	66.0	10.3	15.5
농 과 대 학	7.1	72.9	20.0	11.2
해양과학대학	6.9	72.3	20.8	16.2
이 공 대 학	16.2	72.1	11.8	10.9
1	11.2	66.4	22.4	24.4
2	8.6	80.2	11.1	26.0
3	17.3	65.3	17.3	32.4
4	24.1	66.7	9.3	17.3
남	16.7	68.3	15.0	49.0
여	13.0	71.2	16.1	50.6
전 체	14.8	69.6	15.6	100.0

<表V-4>의 재학생들이 원하는 職業과 專攻學科와의 관계를 보면, 가능하면 관련이 있어야 한다가 69.6%로 가장 높은 反應을 보였고 관련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에 15.6%,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 한다가 14.8%의 反應을 보이고 있어서, 職場에서의 業務活動은 가급적 專攻과 관련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表III-6>의 졸업생의 職業과 專攻과의 일치 정도와 관련시켜 보면, 재학생들이 생각하는 '職業과 專攻이 관련이 있어야 한다'(84.4%)와 졸업생들의 현재 '職業과 專攻이 일치한다'(71.5%)와는 상당히 상관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 한다가 사범대학(23.7%), 인문대학(18.5%), 이공대학(16.2%), 법정대학(15.8%), 경상대학(13.1%), 농과대학(7.1%), 해양과학대학(6.9%)의 순으로 反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敎師라는 專門職을 양성하는 사범대학과 비록 專門性을 요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다소 약한 타대학 학생의 職業意識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職業과 專攻學科가 관련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에는 해양과학대학(20.8%), 농과대학(20.0%), 경상대학(19.0%), 법정대학(14.9%), 인문대학(12.6%), 이공대학(11.8%), 사범대학(10.3%)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학년별로 보면, 職業과 專攻과의 관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反應에는 1학년(11.2%)과 2학년(8.6%)에 비해 3학년(17.3%)과 4학년(24.1%)이 더 높은 反應을 나타내고 있어서 就業時期가 가까울수록 專攻과 職業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간에는 별 차이가 없다.

마. 企業體의 職員 採用方法

재학생들이 바라는 企業體의 新規 職員 採用方法은 다음 <表V-5>와 같다.

<表V-5> 企業體의 바람직한 職員 採用方法 (단위: %)

채용방법 대학·학년·성별	교수 및 학 교 추천	공개 모집	추천·공개 모집 병행	기 타	전 체
인 문 대 학	2.9	64.1	26.2	6.8	16.5
법 정 대 학	4.0	67.3	25.7	3.0	16.2
경 상 대 학	3.6	50.0	46.4	0.0	13.5
사 범 대 학	2.1	73.2	20.6	4.1	15.5
농 과 대 학	4.3	52.9	35.7	7.1	11.2
해양과학대학	11.9	42.6	42.6	3.0	16.2
이 공 대 학	10.3	57.4	30.9	1.5	10.9
1	5.9	52.6	36.8	4.6	24.4
2	4.9	67.3	24.7	3.1	26.0
3	5.9	58.4	32.2	3.5	32.3
4	4.6	54.6	37.0	3.7	17.3
남	8.2	53.3	35.9	2.6	49.0
여	2.8	64.2	28.6	4.5	50.9
전 체	5.4	58.7	32.2	3.7	100.0

<表V-5>의 企業體의 바람직한 職員 採用方法을 보면, 公開募集이 58.7%로 가장 높은 反應을 보였고, 推薦과 公開募集 並行이 32.2%, 教授 및 學校의 推薦이 5.4%, 其他가 3.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재학생 대부분(90.9%)이 企業體가 新入社員을 採用할 때 公開募集에 의해서 하되 필요에 따라 推薦과 公開募集을 並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公開募集의 경우 사범대학(73.2%)이 가장 높고

법정대학(67.3%), 인문대학(64.1%)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敎授 및 學校 推薦의 경우에는 해양과학대학(11.9%)이 가장 높은 反應을 보였고, 이공대학(10.3%), 농과대학(4.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反應 結果를 볼 때, 사범대학의 경우는 국가의 敎師 任用 發令에 의해 採用되지만 만일 企業體에 入社한다고 할 경우는 公開 募集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인문대학의 경우는 專攻學科가 企業體가 원하는 학과와 相異하기 때문에 학과의 구분없이 公開 募集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학년별로 보면 별 차이가 없으며, 남녀별로 보면 公開募集의 경우, 여학생(64.2%)이 남학생(53.3%)보다 더 높은 反應을 나타낸 반면 敎授나 學校의 推薦은 그 반대의 反應을 보이고 있다.

바. 就業 動機

就業 動機는 職業을 갖는 目的, 職業選擇의 基準과 같이 就業活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졸업생을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다음 <表 V-6>과 같다.

<表 V-6> 就業 動機 (단위: %)

취업 동기 대학· 졸업연도·성별	사회 경험 얻기 위함	능력 발휘	사회 낙오 자가 되지 않기 위함	가정 경제 에 도움	주위의 권고	전 체
인 문 대 학	33.3	44.4	8.3	13.9	0.0	14.9
사회과학대학	14.5	48.2	7.2	28.9	1.2	34.3
사 범 대 학	9.7	77.4	3.2	9.7	0.0	12.8
농 과 대 학	37.5	37.5	25.0	0.0	0.0	3.3
해양과학대학	13.8	58.6	6.9	17.2	3.4	12.0
이 공 대 학	21.8	47.3	9.1	18.2	3.6	22.7
1984.2월	19.6	52.2	4.3	21.7	2.2	19.0
1985.2월	16.0	52.0	14.0	16.0	2.0	20.7
1986.2월	15.9	54.5	4.5	25.0	0.0	18.2
1987.2월	24.4	48.9	11.1	13.3	2.2	18.6
1988.2월	19.3	52.6	5.3	21.1	1.8	23.6
남	13.8	50.6	9.4	25.0	1.3	66.1
여	30.0	54.9	5.0	8.6	2.5	33.9
전 체	19.0	52.1	7.9	19.4	1.7	100.0

<表 V-6>의 졸업생들의 就業 動機를 보면, 자신의 能力 發揮가 52.1%로 가장 높고 다음이 家庭 經濟에 도움 19.4%, 社會 經驗 獲得 19.0%, 社會의 落伍者가 되지 않기 위해 7.9%, 주위의 勸告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表 II-1>의 職業을 갖는 目的

에서 經濟的 安定과 일을 통한 自我實現, <表Ⅱ-4>의 職業選擇 基準에서 適性 및 興味와 發展性에 가장 높게 反應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結果를 대학별로 보면, 각 대학 모두 就業을 하게 된 動機로 자신의 能力 發揮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就業 動機에서 두번째의 反應을 보인 家庭 經濟의 도움에서, 농과대학은 전혀 反應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社會 經驗을 얻기 위해서에 높은 反應을 보이고 있다.

5. 就業에 관한 情報 및 相談

가. 就業問題의 相談 對象

재학생들의 就業問題를 論議하기 위한 相談 對象은 다음 <表Ⅵ-1>과 같다.

<表Ⅵ-1> 就業問題의 相談 對象 (단위 : %)

상담 대상 대학·학년·성별	친구·선배	지도교수	취업상담교수	가족·친척	전 체
인 문 대 학	67.0	5.8	3.9	23.3	16.5
법 정 대 학	69.3	6.9	4.0	19.8	16.2
경 상 대 학	65.5	13.1	0.0	21.4	13.5
사 범 대 학	75.3	3.1	3.1	18.5	15.5
농 과 대 학	74.3	4.3	0.0	21.4	11.2
해양과학대학	54.5	18.8	1.0	25.7	16.2
이 공 대 학	60.3	16.2	1.5	22.1	10.9
1	62.5	8.6	1.3	27.6	24.4
2	68.5	5.6	1.9	24.1	26.0
3	71.8	9.4	3.0	15.8	32.3
4	59.2	17.6	1.9	21.3	17.3
남	68.6	11.8	2.3	17.3	49.0
여	64.5	7.6	1.9	26.1	50.9
전 체	66.5	9.6	2.1	21.8	100.0

<表Ⅵ-1>의 재학생들의 就業相談 對象을 보면, 친구·先輩가 66.5%로 가장 높은 反應을 보였고, 家族·친척이 21.8%, 指導教授가 9.6%, 就業相談 教授가 2.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재학생들의 就業問題에 대해 專門的으로 指導·助言 및 情報 提供을 해야 할 대학이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친구·先輩 또는 家族·친척을 就業의 相談 對象으로 하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높게 反應을 보이고 있으나, 指導教授를 相談 對象으로 한다는 반응은 전반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이면서도 대학에 따라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해양과학대학(18.8%)이나 이공대학(16.2%), 경상대학(13.1%)은 사범대학(3.1%)과 농과대학(4.3%), 인문대학(5.8%)에 비해 指導教授의 相談活動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년별, 남녀별 反應은 별 차이가 없다.

나. 就業情報 수집 對象

재학생들이 주로 就業情報를 수집하고 있는 對象은 다음 <表VI-2>와 같다.

<表VI-2> 就業情報의 수집 對象 (단위: %)

수집 대상 대학·학년·성별	친구·선배	지도교수	학교의 취업 담당부서	가족·친척	홍보매체	전 체
인 문 대 학	50.5	1.9	4.9	13.6	30.1	16.5
법 정 대 학	33.7	1.0	6.9	9.9	48.5	16.2
경 상 대 학	34.5	4.8	2.4	8.3	50.0	13.5
사 범 대 학	49.5	4.1	3.1	9.3	34.0	15.5
농 과 대 학	54.3	1.4	4.3	5.7	34.3	11.2
해양과학대학	28.7	12.9	6.9	10.9	40.6	16.2
이 공 대 학	26.5	5.9	1.5	7.4	58.8	10.9
1	36.8	5.3	7.9	12.5	37.5	24.4
2	36.4	4.9	4.3	9.9	44.4	26.0
3	44.1	3.5	2.0	7.9	42.6	32.3
4	40.8	5.6	4.6	7.4	41.7	17.3
남	37.3	6.5	3.6	7.8	44.7	49.0
여	42.1	2.8	5.4	11.0	38.9	50.9
전 체	39.7	4.6	4.5	9.5	41.5	100.0

<表VI-2>의 재학생의 就業情報 수집 對象을 보면, 弘報媒體가 41.5%로 가장 높고, 친구·先輩가 39.7%, 家族·친척이 9.5%, 指導教授 4.6%, 학교의 就業 擔當 部署가 4.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법정대학(48.5%), 경상대학(50.5%), 해양과학대학(40.6%), 이공대학(58.8%)은 주로 弘報媒體에서 就業情報를 수집하고 있고 인문대학(50.5%), 사범대학(49.5%), 농과대학(54.3%)은 주로 친구나 先輩를 통해 취업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指導教授, 就業 擔當部署를 통한 就業情報의 수집은 4.5% 정도로 극히 미약하다.

이러한 경향도 <表VI-1>과 마찬가지로 학교 당국이 재학생의 취업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6. 卒業後 母校와의 관계

본고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母校와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다음 <表VII>과 같다.

<表VII> 卒業後の 母校와의 관계 (단위 : %)

모교 관계 대학· 졸업연도· 성별	은사와의 개인적인 용무	각종 증명서 교부	동창회 참석	모교의 각종 행사에 참석	무 관	전 체
인 문 대 학	55.6	5.6	13.9	11.1	13.9	14.9
사회과학대학	39.8	7.2	13.3	9.6	30.1	34.3
사 범 대 학	41.9	6.5	25.8	9.7	16.1	12.8
농 과 대 학	50.0	0.0	25.0	12.5	12.5	3.3
해양과학대학	48.3	13.8	13.8	6.9	17.2	12.0
이 공 대 학	45.4	16.4	14.5	3.6	20.0	22.7
1984. 2월	32.6	6.5	23.9	8.7	28.3	19.0
1985. 2월	56.0	4.0	18.0	0.0	22.0	20.7
1986. 2월	52.3	13.6	2.3	11.4	20.5	18.2
1987. 2월	37.8	13.3	17.8	11.1	20.0	18.6
1988. 2월	45.6	10.5	15.8	10.5	17.5	23.6
남	48.1	9.4	13.8	8.1	20.6	66.1
여	39.0	9.8	19.5	8.5	23.2	33.9
전 체	45.0	9.5	15.7	8.3	21.5	100.0

<表VII>에서와 같이 졸업생의 母校와의 관계를 보면, 恩師와의 個人的인 用務가 45.0%로 가장 많고, 전혀 무관한 경우가 21.5%, 同窓會 參席이 15.7%, 각종 證明書 交付가 9.5%, 母校의 각종 行事 參席이 8.3% 순으로 나타나, 무엇보다 恩師와의 관계를 계속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表VI-1>의 就業相談 對象으로 指導教授가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대학별, 졸업연도별로 보면, 전체적인 경향과 별 차이가 없으나, 남녀별로 보면, 恩師와의 個人的인 用務에서, 남자는 48.1%를 보인 반면, 여자는 39.0%를 나타내었고, 同窓會 參席에서는 여자가 19.5%를 나타낸 반면, 남자는 13.8%를 보여, 母校와의 관계에서 남녀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7. 職場에서 同窓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同窓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다음 <表Ⅷ>과 같다.

<表Ⅷ> 職場에서의 同窓과의 관계 (단위: %)

대학·졸업연도·성별	동창 관계 타 대학 졸업생보다 가깝게 지냄	타 대학 졸업생과 차이가 없음	타 대학 졸업생과 가깝게 지냄	본교 졸업생 없음	타교 졸업생 없음	기 타	전 체
인 문 대 학	33.3	44.4	0.0	2.8	13.9	5.6	14.9
사회과학대학	38.6	41.0	2.4	13.3	3.6	1.2	34.3
사 범 대 학	35.5	51.6	0.0	9.7	0.0	3.2	12.8
농 과 대 학	50.0	12.5	0.0	37.5	0.0	0.0	3.3
해양과학대학	44.8	41.4	0.0	6.9	3.4	3.4	12.0
이 공 대 학	45.4	36.4	1.8	9.1	5.5	1.8	22.7
1984. 2월	43.5	30.4	4.3	17.4	2.2	2.2	19.0
1985. 2월	40.0	46.0	2.0	10.0	0.0	2.0	20.7
1986. 2월	40.9	50.0	0.0	6.8	2.3	0.0	18.2
1987. 2월	37.8	46.7	0.0	8.9	4.4	2.3	18.6
1988. 2월	38.6	33.3	0.0	8.8	14.0	5.3	23.6
남	42.5	41.9	1.9	9.4	3.1	1.3	66.1
여	35.4	39.0	0.0	12.2	8.5	4.9	33.9
전 체	40.1	40.9	1.2	10.3	5.0	2.5	100.0

<表Ⅷ>에서와 같이 졸업생들은 타대학 졸업생보다 본교 졸업생과 더 가까이 지낸다에 40.1%의 반응은 보이고 있으나, 타대학 졸업생과도 별 차이없이 지낸다에도 40.9%의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職場에서의 원만한 對人關係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난 것은 졸업생이 취업하고 있는 직장이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타대학 졸업자가 없다는 점이 다소 작용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학별, 졸업연도별, 남녀별 경향도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8. 學校에 바라는 事項

본 문항에서는 就業活動과 관련된 사항 중 학생이 학교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로 번호를 매기도록 하였다. 우선 4개의 希望事項으로 분류하고 希望事項에 따라 대학별로 우선순위에 따른 反應 頻度를 구하고, 그 우선순위에 가중치를 주어 점수화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에 대한 希望事項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表Ⅷ>와 같다.

<表Ⅷ> 在學生이 就業情報와 關聯하여 學校에 바라는 事項 (단위: 명)

대학별 희망 사항	취업 정보 자료 제공	직업관 확립 오리엔테이션	학교 당국의 취업대책	지도교수의 취업지도
인 문 대 학	275 ②	257 ③	312 ①	192 ④
법 정 대 학	271 ②	203 ④	322 ①	220 ③
경 상 대 학	242 ②	175 ③	254 ①	169 ④
사 범 대 학	280 ②	225 ③	291 ①	172 ④
농 과 대 학	203 ②	160 ③	209 ①	128 ④
해양과학대학	278 ②	232 ③	290 ①	216 ④
이 공 대 학	199 ①	151 ③	189 ②	143 ④
계	1,748	1,403	1,867	1,240
순 위	2	3	1	4

<表Ⅷ>의 재학생들이 就業活動과 관련하여 학교에 바라는 사항을 보면,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就業對策을 1위로 들고 있으며, 2위로 就業情報 資料 提供, 3위는 職業觀 確立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4위를 指導教授의 就業指導로 들고 있다. 여기서 학교 당국의 就業對策을 가장 우선 사항으로 바라는 것은 <表Ⅵ-1>, <表Ⅵ-2>와 같이 본 대학이 아직까지 취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의 職業選擇이나 就業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며, 就業情報 提供이나 職業觀 오리엔테이션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대부분의 대학이 전체적인 순위와 같으나 이공대학의 경우는 就業情報 提供을 최우선으로 들고 있어서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適應하려는 대학의 特性을 엿볼 수 있다.

V. 要約 및 提言

오늘날에 있어서의 職業의 意味는 생계유지의 수단이 됨과 동시에 자아를 실현하고, 심리적인 만족을 느끼며 능력을 발휘하는 터전으로 본다.¹⁸⁾ 이런 의미에서 濟州大學生의 職業觀은 비교적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 직업을 갖는 목적으로 경제적 안정(36.8%), 일을 통한 자아실현(33.2%)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아실현의 의지가 남학생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을 이상적인 직업으로 보고 있는 점, 직업선택 기준을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가 적성 및 흥미에 두고 있는 점에서 제주대 학생들의 직업관은 현실과 이상을 적절히 조화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卒業生들의 就業實態를 보면, 공개모집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43.8%), 직업도 전공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71.5%). 전직경험도 적고(80.6%), 직무의 만족도도 비교적 높다. 다만 轉職을 희망하는 경우(25.6%)가 많은데, 이것은 在學時에 취업준비가 미흡했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在學生들의 就業準備 常態를 보면, 거의 다수가 취업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며(75.2%), 3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작하고 있다(41.5%).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제주대 학생들은 타대학 학생들보다 한 발 앞서 취업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在學生들의 就業選擇 要件을 보면, 전공학과 선택동기로 적성 및 흥미검사 결과와 취업전망을 들고 있으며(66.6%), 직업과 전공학과와는 관련이 있어야 하고(84.4%), 기업체의 직원 채용은 공개모집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대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의식이 매우 건전함을 말해주고 있다.

在學生들의 就業 相談 對象을 보면, 친구·선배, 가족 등에게 주로 의지하고 있으며, 취업정보도 친구·선배나 홍보매체를 통하여 얻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이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在學生들의 學校에 바라는 事項을 보면, 학교 당국의 취업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들고 있

18) 김충기,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교육과학사, 1987. 5. p.185.

으며, 그 다음으로 취업정보 자료 제공, 직업관 확립 오리엔테이션, 지도교수의 취업지도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재학중에 취업준비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해 준다.

결론적으로, 濟州大學生들의 職業觀은 소박하고 건전하지만, 경상시에 진로교육이 없고, 취업준비도 모자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학교당국도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VI. 卒業生の 就業 對策

오늘날과 같이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는 개인의 욕구도 다양하게 되고, 직업도 다양하게 변화할 수 밖에 없다. 결국 就業은 그 개인의 자기표현이며, 자긍심을 배양하며, 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한 형태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나름대로의 教育目標와 그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對策을 講究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適性이나 進路展望 등에 관하여 숙고할 겨를도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로문제를 생각할 때, 더 많은 좌절과 갈등을 겪게 된다.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職業教育 내지 進路教育을 실시하고, 有關機關과의 유대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 就業輔導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는 정확한 정보를 체계화하여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就業을 擴大시킬 수 있는 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就業輔導 活動의 一元化

現代 産業社會는 職業의 專門化와 分業化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취업지도도 학생 개개인에게 자기 자신과 직업의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여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就業斡旋 활동을 위한 조직적인 就業輔導 活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제주대학교 취업담당부서는 학생처 장학담당관실과 학생생활연구소 취업보도부로 이원화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就業部署를 一元化하고 일원화된 부서의 조직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업정보지의 발

간, 취업자료실의 운영, 상담실과의 유기적인 관계 등을 위해서는 학생처 산하에 있는 장학담당관실보다는 학생생활연구소 취업보도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학생처와 일단 분리 시킴으로써 就業輔導活動에 대한 學生들의 認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시킬 수가 있다. 문제는 연구소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취업보도에 대한 충분한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취업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학교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就業資料室의 運營

학생들로 하여금 광범위한 職業世界를 이해시키고, 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情報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취업보도 업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就業情報로는 직업의 구조, 취업의 경향, 직업의 분류와 직종, 직무의 성질, 자격기준, 작업조건 등이 포함된다.

제주대학교는 중앙과 떨어져 있어서 道外의 就業情報를 얻기가 타대학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고, 또 학생 개개인이 자기에게 맞는 정보를 얻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대부분의 대학이 就業資料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주대학교는 이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루 빨리 자료실이 마련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就業準備 教育의 活性化

Tolbert(1980)에 의하면, 대학에서의 就業指導는 졸업반에서 행하여질 것이 아니라 저학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¹⁹⁾ 즉 低學年부터 미리 취업지도를 할 경우에는 그만큼 취업에 대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취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의 기회도 쉽게 올 수가 있고 취업후의 직업적 적응과 성공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주대학교의 경우, 就業準備가 대부분 3학년부터 시작되고 있어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물론 학교 당국에서는 전산과목과 외국어 등을 1학년부터 설강하여 이

19) Tolbert, E.L.,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0. 李惠星外, 大學 職業輔導活動의 活性化 方案 研究, 學生生活研究 제 23 권, 이화여자대학, 1987.7. p.26에서 재인용.

에 대비하고 있지만, 학생들도 최소한 2학년 초부터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여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대학의 就業輔導 機構에서는 취업을 위한 事前 準備教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적성검사, 직업의식교육, 부직 및 취업세미나, 취업특강, 현장견학 및 실습 등의 활동을 전학년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4. 有關機關과의 유대강화

대학의 취업보도 기구에서는 재학생의 就業輔導 活動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학생처 장학담당관실, 각 단과대학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관련 정부부서 및 각종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체 등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대학교는 유관기관, 특히 企業體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취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대학 당국이 중심이 되어 제주대학교의 현황을 각 기업체에 홍보하는 한편, 주요 기업체의 人事擔當 幹部 事員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²⁰⁾ 특히 인사담당 간부 사원들을 학기초에 대학에 초청하여 新入社員 選拔要領과 취업정보를 전달하게 하면서 기업과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과의 유대강화에서 먼저 고려할 사항은 제주도 출신의 기업가와 접촉하는 것이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출신의 기업가라면 그들의 애향심 등이 작용하여 가급적이면 就業 擴大의 방향으로 제주대학생들을 대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5. 就業同窓과의 유대강화

재학생들로 하여금 취업정보의 확보는 물론 직업에 대한 이해, 직업에 임하는 자세, 취업알선 등을 위해서는 이미 취업하고 있는 同窓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설문에서 본 바와 같이 취업문제의 상담대상이나 취업정보의 수집을 친구나 선배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을 감안한다면, 취업동창들이 재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과

20) 이공대학의 경우, 학장을 중심으로 한 보직교수, 학과장 등이 방학을 이용하여, 전국 유관기업체를 순방하면서 취업문제를 협의·알선하여 좋은 성과를 걷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졸업후 동창간의 紐帶는 유지되고 있으나, 졸업동창과 재학생과의 관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취업세미나」와 같은 행사를 통하여 그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현직교사와 교직과정 이수자, 기업체의 사원과 취업희망자, 각종 고시합격자와 고시준비생간의 간담회를 통하여 취업정보를 알릴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單大나 總同窓會와의 協力關係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취업동창들의 생생한 체험은 재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참 고 문 헌

- 강 동 식, “1987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 10 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88.2, pp.3~91.
- 강지용 외, “졸업생의 취업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 10 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88.2, pp.127~167.
- 김 충 기,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교육과학사, 1987, p.185.
- 김 호 진, “고급인력의 충원확대 및 바람직한 채용방법”, 「고급인력의 취업 대책」, 전국대학 취업지도협의회, 1988, pp.9~20.
- 김학수 외, “대학졸업생의 취업동향과 그 변동 추세”, 「학생지도연구」, 제 4 권, 경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71, pp.1~15.
- 백 운 학, “본교생의 직업관에 대한 분석”, 「학생연구」, 제 14 권, 영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83, pp.69~94.
- 유 니 콧, 「'88 기업가이드」, 유니콧추진위원회, 1988.
- 임 인 재, “인간성장과 직업과정”, 「새교육」, 대한교육연합회, 1976.5, p.51.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진로정보」, 제주대학교, 1988.
- Clark, K.E., “Vocational Interest Testing”,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N.Y.: The MacMillan Co., 1974, pp.345~349.
- Duncan, O.D., Socio Economic Index for All Occupation, N.Y.: Seminar Press, 1972.
- Durkheim, E.,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N.Y.: The Free Press, 1983.
- Ginzberg, E. & Others,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Y., 1951.
- Hall & Lindzey, G., Theories of Personality, N.Y.: Lang Mass, 1957.
- Herr E. & Crammer, “Career Education in the College Preparatory School”, The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1973.3.
- Holland, J., Making Vocational Choice: A Theory of Career, Englewood Cliff, N. J., Prentice-Hall, Inc., 1973.
- Hoppok, R., Occupational Choice, N.Y.: McGraw-Hill Book Co. Inc., 1957.
- K. D. I., 「장기 경제사회발전(1977~1991)」.
- Rehbeg, R., “Career Counseling in Contemporary U.S. High School”,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1979, p.119.
- Roe, A., Early Determinants of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57.4.
- Tolbert, E.L.,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0.
- Weinrach, S.G., How Career Choice are made, N.Y.: Mass Information Corporation, 1975.

< Abstract >

The problems of employment of the graduates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m

Seo, Kyung Lim

Park, Tae Soo

Kang, Dong Sik

Kim, Doo Hw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lan of employment by investigating the sense of occupation of the undergraduates and the state of employment of the graduates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subjects of investigation includes 624 undergraduates and 242 graduates, and the contents of investigation are the sense of value of occupation, the state of employment, readiness for employment, requisites for the selection of occupation,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on employment, relation to this university after graduation, relation to alumni in the work place, and the matters that they expect of this university.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are as follows.

In terms of the sense of value of occupation, the purposes of jobs are economic stability (36.8%) and self-realization through work (33.2%), and the tendency to commence work for self-realization is more apparent among girl students than among boy students, the criteria of selecting occupation are aptitude and interest in work. In terms of the state of employment of the graduates, many graduates are employed through public invitation (43.8%), and their jobs agree with their majors (71.5%). They don't change occupation (80.6%), and they are comparatively content with their jobs. In terms of the readiness for employment of the

undergraduates many students are not ready to be engaged (75.2%), and they start preparing for employment in the junior year (41.5%). In terms of the criteria of selecting occupation, the motives for choosing majors are aptitude, interest and the prospect for employment (66.6%). The students hope that occupation will be related to majors (84.4%), and that they will be employed by public collection. Then generally depend on friends, seniors and family members for the consultation on employment. They also gather information of employment from friend, seniors and mass media. This shows that the university authorities are not active in finding jobs. In terms of the matters that the students expect of the university, they desire the school authorities to devise a plan for employment, to provide information on employment, to orient themselves to the establishment of their views of occupation, and to have academic advisors guide in finding occupation.

The plans for employment based on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activities of employment guidance of this university should be unified. The Financial Aid Office in the Office of Student Affairs and Section of employment Guidance in the Student Guidance Center, which are concerned with finding jobs, should have organic correlation with each other, yet they should be merged into the Employment Guidance Section of the Student Guidance Center for the publication of employment information, for the operation of employment materials, and for the relation with the consulting room.

Second, the operation of employment morgue should be activated. At the present time, the Student Guidance Center of this university has no employment morgue. However, an employment morgue should be set up and operated to provide students with information of rapidly changing occupation such as the structure of jobs, the tendency of employment, new kinds of jobs and the conditions of work.

Third, early education of the readiness of employment is needed. Most students of this university start preparing for employment in the junior year, which gives difficulty in finding jobs, considering the regional conditions. Accordingly, early education of occupation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the activities of aptitude

tests, educating the sense of occupation, seminars on part-time jobs and occupation, special lectures on finding jobs, and the study by inspection.

Fourth, strong ties with the institutes concerned should be established. Close relation should be preserved with the related section of government and the various social bodies and companies as well as with the related section of this university to facilitate employment through continuous exchange of information.

Fifth, relations with the employed alumni should be reinforced. Advices can be obtained on the understanding of occupation, attitude toward jobs and employment guidance by close relations with the employed alumni, and seminars or social meetings should be held for these advices.